

KWDI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8)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신선미 · 민무숙

2010

연구보고서-2-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0 연구보고서 2-9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의 단위 연구보고서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8)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연구책임자 : 신 선 미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민 무 숙 (본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요약

1. 연구개요

가.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예산이 성별로 공평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에 따라 기대하는 정책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고루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하게 활용되었는가?
- 그 결과로 정책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산의 수립, 배분, 집행 과정에서 그 원인은 무엇인가?

나. 연구내용

- 1)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정책목적, 사업내용, 추진방법, 정책대상의 특성 이해
- 2)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여성 참여율, 지출예산 중 여성 수혜율 분석
- 3)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정책효과 성별 차이 분석
 - 프로그램 참여 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 프로그램 등록 당시 취업자의 일자리 관련 효과
 - 프로그램 등록 당시 미취업자의 취업 효과
 - 전체 참여자의 평생교육수요 충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효과
- 4)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성인지적 개선 방안 제언

다. 연구방법

- 1) 참고문헌 및 정책자료 분석
 - 지역인재육성 관련 선행연구
 - 13개 시·도 사업단의 2008년과 2009년 사업결과보고서
- 2) 질문지 조사
 - 2009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 담당 공무원 29명
 - 2009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 공모사업(인재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513명

- 2010년도 7월에 1주간 전화조사 실시
- 3) 자문회의 운영
 - 질문지 개발, 표본 설계, 정책제언 등을 위한 자문회의 2회 운영

2. 주요 연구결과

가.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이해

- 2009년도에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추구한 정책목적은 1)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제고, 2) 지방자치단체의 HRD 정책역량 강화(기획력, 네트워크 구축, 총괄·조정력), 3)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근거한 인재육성사업 추진(지역별 특화산업 연계, 현장 맞춤형 사업, 지역인적자원개발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창의적 사업)이다.
-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영역은 크게 기본사업과 공모사업으로 구분되며 2009년도에 기본사업에 투자된 국고예산은 20억, 공모사업에 투자된 국고예산은 60억이었다. 공모사업은 기초자치단체사업, 광역자치단체사업, 전년도 우수사업을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지원금의 40%를 대응자금으로 투자하도록 하였다. 공모사업의 내용은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1)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되거나, 2)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하거나, 3) 지역인적자원개발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창의적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정책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13개 시·도의 지역주민 전체이다. 거기에는 초·중등학교나 대학 재학생도 포함되지만,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대부분은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13개 시·도의 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1.3%이다. 그러나 여성의 고용률은 45.5%에 불과하고 남성의 고용률은 69.1%이다. 따라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경우 남성의 참여율이 훨씬 높을 것이고,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여성의 참여율이 높을 것이다.

나. 예산 투자의 양성평등 정도

- 2009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총 11,232명이며, 그 중 여성 참여자는 38.1%를 차지한다. 수료자를 기준으로 하면 여성 참여율은 38.4%이다.
 - 공모사업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기초자치단체사업에 여성 참여율은 60.1%, 광역자치단체사업에 여성 참여율은 29.9%, 계속사업에 여성 참여율은 34.6%이다.
 - 여성 참여율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추어 낮은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에 여성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낮으므로 특별히 지역인재육성사업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 여성 참여율이 정책대상인구의 여성 비율보다 낮은 이유로 1)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여성 참여율이 낮고, 2) 자치단체의 전략 산업에 부응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도에서, 해당 전략산업의 여성인력 수요가 적거나 그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2009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투자된 예산은 국고 60억원을 포함하여 96억 7,763만원이다. 그 중 공통사업비를 제외하고 각 프로그램에 사용된 예산은 76억 9,357만원인데, 1인당 지출예산을 기준으로 여성에게 투자된 예산(31억 7,552만원)은 공통사업비를 제외한 전체 예산의 41.3%이다.
 - 공모사업분야별로 여성 수혜율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사업은 58.3%, 광역자치단체사업은 31.4%, 계속사업은 41.6%이다.
 - 여성들이 1인당 지출예산이 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여성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예산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다. 성별에 따른 정책효과의 차이

- 인재양성 프로그램 참여 후 경제활동상태 변화
 - 프로그램 등록 시점과 프로그램 종료 후 최소 7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을 비교할 때, 취업자가 45.6%에서 70.8%로 증가하였고, 미취업자는 54.4%

에서 29.2%로 감소하였다.

- 여성은 34.9%에서 63.9%로 29.0% 포인트 증가하였고, 남성은 55.9%에서 77.4%로 21.5% 포인트 증가하였다.

○ 일자리 관련 효과

- 취업자들의 직무능력향상이나 맡은 업무, 승진, 이직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취업자들 역시 절반 이상은 관련 분야로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여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겠다.
- 다만 등록 당시 취업자와 미취업자 두 집단 모두,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게서 일자리와 관련된 긍정적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 평생교육 수요 충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효과

- 프로그램 등록 동기를 분석해 보았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는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추구하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취업 효과를 더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 프로그램 참여로 관련분야의 직업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 정도와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된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각각 참여자의 86.7%와 88.5%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3. 정책제언

○ 정책대상에 미취업자 비중을 확대하여 타 부처 관련 사업과의 차별화 도모

- 2009년의 경우 미취업자 비중이 남자 44.1%, 여자 65.1%, 전체 54.4%이나, 미취업자 비중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기초자치단체사업과 계속사업의 예산비중 확대

- 광역자치단체사업은 예산 비중이 가장 높지만 참여자 비중은 계속사업보다 낮고, 프로그램 참가자 중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으며, 취업자 비율의 증가는 계속사업에 미치지 못한다.
-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은 지역의 전략산업이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주

력하는 편인데, 이러한 인재양성사업은 타 부처로부터 막대한 국고를 지원받는 경우가 있어, 지역인재육성사업에서 소규모의 지원을 추가로 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

- 기초자치단체사업의 예산 비중을 30%로, 계속사업의 예산 비중을 40%로 각각 확대하고, 광역자치단체사업의 예산 비중을 30%로 줄이는 것을 제안하였다.

공모사업분야별 지출예산, 참여자 수, 취업자 비율 비교

공모분야	예산 비중	참여자 비중	취업자 비율 변화	
			2009년 프로그램 등록 시점	2010년 7월 조사시점
기초자치단체사업	16.2	20.6	39.2	54.9
광역자치단체사업	47.7	37.7	51.9	75.3
계속사업 (전년도 우수사업)	36.1	41.7	41.3	81.8

○ 여성 참여율을 38.1%에서 50%까지 제고

- 여성 참여율을 50%까지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1) 취업자 대상 프로그램의 비중 축소, 2) 공모사업분야별로 차등적인 여성 참여율 가이드 제공, 3) 사업단 컨소시엄에 여성 HRD 관련기관 참여를 제안하였다.

○ 여성 수료자 대상의 취업 연계 강화

- 미취업자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1) 취업 의지가 강한 수강생을 선발하도록 선발기준 수정, 2) 프로그램 종료 후 지역 여성 HRD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취업연계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하였다.
- 취업자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내용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교육내용을 성인지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 담당 공무원의 여성 HRD 역량 강화

- 지역인재육성사업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시, 여성 HRD의 필요성 설명, 성인지 예산 제도 안내, 지역별 여성 HRD 인프라 소개 등을 제안하였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5
II.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이해	7
1. 정책목적	9
2. 사업내용	10
3. 정책대상	20
III. 여성 참여 실태와 성인지적 예산분석	31
1. 여성 참여 실태	33
가. 지역별 여성 참여율	33
나. 공모사업분야별 여성 참여율	34
다. 사업별 및 프로그램별 여성 참여율	35
2.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인지적 예산분석	38
가. 지역별 여성 수혜율	38
나. 공모사업분야별 여성 수혜율	40
다. 프로그램별 여성 수혜율	40
IV. 사업성과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47
1. 담당 공무원 조사를 통한 성과분석	49
가. 조사대상자	49
나. 정책효과에 대한 의견	50

다. 공무원의 여성 HRD 역량	50
2. 프로그램 참여자 조사를 통한 성과분석	54
가. 조사대상자	54
나.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57
다. 취업자의 일자리 관련 효과	59
라. 미취업자의 취업 효과	61
마. 평생교육 수요 충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효과	65
바. 프로그램 만족도 및 애로사항	69
 V.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75
1. 연구결과 요약	77
가. 예산 투자의 양성평등 정도	77
나. 성별에 따른 정책효과의 차이	78
2. 정책제언	79
가. 정책대상의 차별화	79
나. 공모사업분야별 예산배분 조정	80
다. 여성 참여율 제고 : 50%까지	81
라. 여성 수료자 대상 취업연계 강화	83
마. 담당 공무원의 여성 HRD 역량 강화	83
 ■ 참고문헌	85
 ■ 부 록	87

표 목 차

<표 II-1>	시·도별 지역인적자원개발 협의회 및 RHRD 지원센터	12
<표 II-2>	2009년 지역인재육성사업 기본사업의 내용	15
<표 II-3>	최근 3년간 시·도별 지역인재육성사업(공모사업)	17
<표 II-4>	16개 시도의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4
<표 II-5>	연령층별 비경제활동의 주요 활동	26
<표 II-6>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분야(산업)	27
<표 II-7>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분야(직업)	28
<표 II-8>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희망하는 고용상의 지위 및 고용형태	29
<표 II-9>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월평균 희망소득	29
<표 III-1>	13개 시·도 지역인재육성사업(공모사업)의 여성 참여율	34
<표 III-2>	지역인재육성사업 공모분야별 여성 참여율	35
<표 III-3>	13개 시·도 지역인재육성사업(공모사업) 프로그램별 여성 참여율	35
<표 III-4>	2009년 공모사업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여성 참여율별 참여자 현황	38
<표 III-5>	2009년도 공모사업분야 예산규모 및 여성 수혜율	39
<표 III-6>	공모분야별 인재양성 프로그램 예산규모 및 여성 수혜율	40
<표 III-7>	13개 시·도 인재육성 프로그램별 예산규모 및 여성 수혜율	41
<표 IV-1>	질문지 조사대상 공무원	49
<표 IV-2>	지역인재육성사업을 담당했던 기간	50
<표 IV-3>	정책효과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	50
<표 IV-4>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선정기준(중복선택)	51
<표 IV-5>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인식	52
<표 IV-6>	지역 여성의 취업 욕구나 교육훈련 수요 반영정도	52

<표 IV-7> 성별에 따른 수료생의 취업기회 차이	52
<표 IV-8> 성별에 따른 직업역량제고 효과 차이	53
<표 IV-9> 여성을 위해 특성화된 인재육성사업 수행의 필요성	53
<표 IV-10> 여성 인재육성사업 수행이 필요한 이유	53
<표 IV-11> 인재육성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를 장려할 집단	54
<표 IV-12> 프로그램 참여자 조사를 위한 조사대상자	55
<표 IV-13>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	56
<표 IV-14>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57
<표 IV-15> 공모사업분야별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58
<표 IV-16> 취업자의 고용상 지위 변화	59
<표 IV-17> 취업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참여 효과	60
<표 IV-18> 취업자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시 애로사항(복수응답)	61
<표 IV-19> 미취업자의 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경험 여부	62
<표 IV-20> 프로그램과 맡은 일과의 관련 정도	62
<표 IV-21> 관련된 분야로 취업했을 때 고용상의 지위와 고용형태	63
<표 IV-22>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 취업했을 경우 취업기간	63
<표 IV-23> 프로그램과 관련된 분야에 취업한 경우 취업지역	64
<표 IV-24> 프로그램 종료 후 구직활동 여부	64
<표 IV-25> 미취업자 및 실업자의 프로그램 등록 동기	65
<표 IV-26> 전체 참여자의 성별 프로그램에 등록 동기	66
<표 IV-27> 여성 참여 비율에 따른 프로그램 유형별 프로그램 등록 동기 ..	66
<표 IV-28> 공모사업분야별 프로그램 등록 동기	67
<표 IV-29>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관련 분야의 직업능력 향상에 도움 정도	68
<표 IV-30> 프로그램 성과-삶의 질 향상에 도움 정도	68
<표 IV-31>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 항목	69
<표 IV-32>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69
<표 IV-33> 프로그램 참여 시 애로사항 유무 및 요인	70
<표 IV-34>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	71

<표 IV-35> 프로그램 유형별 수강등록 방식	72
<표 IV-36> 성별에 따라 참여했던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대	72
<표 IV-37> 여성 참여 비율에 따른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대	73
<표 V-1> 공모사업분야별 지출예산, 참여자 수, 취업자 비율 비교	81
<표 V-2> 공모사업(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여성 참여율 가이드(안)	82

그림 목 차

[그림 Ⅱ-1]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도	11
[그림 Ⅱ-2] 2008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영역과 예산배분	13
[그림 Ⅱ-3] 2009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영역과 예산배분	14
[그림 Ⅱ-4] 2010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영역과 예산배분	16
[그림 Ⅱ-5] 13개 시·도의 경제활동인구 규모 비교	21
[그림 Ⅱ-6] 13개 시·도 경제활동인구의 성별 고용률	22
[그림 Ⅱ-7] 13개 시·도의 성별 실업자 수 및 실업률	23
[그림 Ⅱ-8] 13개 시·도의 34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자 수 및 실업률	23
[그림 Ⅱ-9] 13개 시·도의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4
[그림 Ⅲ-1] 13개 시·도 지역인재육성사업(공모사업)의 여성 참여율	33
[그림 Ⅲ-2] 13개 시·도 지역인재육성사업 여성 참여율과 수혜 예산 비율 ..	39

I

서론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5

1. 연구목적

우리나라 산업발전이 우수한 인적자본에 의존해왔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앞으로 지식기반경제 시대는 더욱 더 우수 인적자본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인적자본의 육성은 주로 공교육을 통해 국가가 담당해왔으나, 앞으로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인적자본의 육성에 지역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취지로 2002년부터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지역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인재육성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국가수준의 인재양성은 교육청, 학교, 대학 등 공교육체제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사업단(대학, 교육청, 각급학교, 평생교육기관, 산업체, 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공교육 중심의 인재양성정책과 차별화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의 발전과정을 돌이켜 살펴보면, 교육분야는 전통적으로 성차별이 심했던 분야이나 지금은 그러한 차별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에 여성의 교육기회는 상당히 제한되었고, 교육내용도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2000년대에는 초·중등교육에서 교육기회의 성별 불평등이 거의 사라졌으며 여학생의 학업성취수준도 높은 편이다. 고등교육기회, 특히 대학원 교육기회는 아직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적으나 여성의 고등교육기회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공교육에 관한 성인지 통계가 잘 발달되어 있어 교육분야의 양성평등 실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근본적인 연구문제는 “지역중심의 인재양성이 공교육을 통한 국가주도의 인재양성과 마찬가지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이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의 내용은 주로 평생교육이며, 특히 최근에는 미취업자를 훈련시켜 취업시키려는 목적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직업적 목적을 가진 평생교육분야는 국가주도의 공교육 분야에 비해 여성의 참여율이 낮고 성인지적 통계가 발달되어 있지

4 ●●●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못하다. 직업적 목적의 평생교육에 여성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주로 취업자의 교육훈련 기회가 여성에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시하는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남성 참여율(2008년 기준)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비 47.5%이나 여성 참여율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비 34.1%이다. 이에 비해 참여자 규모가 매우 작은 실업자 훈련에서는 여성 참여율¹⁾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 연구는 성인지적 예산 분석의 사례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위에서 제시한 근본적인 연구문제를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예산 수립, 배분, 집행, 정책효과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하게 활용되었는가?
- 그 결과로 정책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산의 수립, 배분, 집행 과정에서 그 원인은 무엇인가?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로부터 지역인재육성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수집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나,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하게 투자되고 있는가, 투자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하게 나타나는가를 점검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예산지출과 정책효과가 양성평등한가를 분석하여, 지역인재육성사업의 본래 사업 목적을 추구하는데 기여하면서 동시에, 그 정책효과가 양성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2008년도 실업자 수는 남성이 505 천명, 여성이 265 천명(KOSIS)이나 실업자 훈련 참여자 수는 남성이 51,877명, 여성이 61,612명이다(노동부, 2009 여성과 취업).

2. 연구내용

이 연구의 연구내용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이해하기 위해 정책목적, 사업내용, 추진방법, 정책대상의 특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정책이 처음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이며,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대로이나 매년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 사업내용, 추진방법 등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 연구는 자료 확보가 가능한 최근 연도를 중심으로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이해하고자 했다.

둘째, 2009년을 중심으로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인재양성 프로그램²⁾의 여성참여율을 분석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하게 쓰였는가를 분석하였다. 2009년도 자료만을 분석한 이유는 그 이전의 사업결과보고서가 성별 분리통계를 실시하지 않아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인재육성사업에 투자된 예산을 활용한 결과로 기대했던 정책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예산의 수립, 배분, 집행 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의 기대효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계획에 정의된 바를 따랐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정책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면서 동시에 남성과 여성에게 정책효과가 공평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개선할 점을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위의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 및 정책자료 분석, 질문지 조사, 자문회의 운영을 채택하였다.

먼저 문헌연구 및 정책자료 분석은 지역인재육성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2)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주로 지역인재육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였다.

6 ●●●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시·도 사업단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지역인재육성사업 결과보고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인재육성사업에 관한 선행연구는 소수(이희수 외 2003, 김안국 2005, 손유미 외 2008, 현영섭 외 2008)이다. 시·도 사업단의 사업결과보고서는 2008년과 2009년도 분을 수집하였으나, 2008년도 보고서는 성별 분리통계를 적용하지 않아 사업내용을 분석하는데만 활용하고 예산분석은 2009년 보고서만을 분석하였다.

둘째, 질문지 조사는 공무원과 인재양성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되었다. 공무원 조사는 2009년도에 사업을 담당했던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공무원 전체(29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업 착수단계, 중간보고 단계, 사업보고서 제출 단계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변경된 경우 모두 조사하였다.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513명을 조사하였다. 이는 전체 참여자의 4.6%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조사대상자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 단계로 무선표집하였다. 먼저 전체 프로그램을 여성 참여율 0.0%에서 100.0%까지 순서대로 정렬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44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으며, 시·도 사업단을 통해 그 중 36개 프로그램의 이수자 리스트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리스트가 확보된 프로그램별로 조사대상자 수를 배정하고 해당 프로그램 이수자 중에 무선표집을 하도록 했다.

셋째, 자문회의는 질문지 개발, 조사대상자 표본 설계, 정책제언 등을 위해 2회 실시하였다. 자문회의에는 공무원과 연구자들(지역 RHRD센터 연구자 포함)이 참여하였다.

Ⅱ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이해

1. 정책목적	9
2. 사업내용	10
3. 정책대상	20

1. 정책목적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인재양성사업을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지방정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지역혁신교육사업,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등이 있다. 그 밖에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R&D 및 기술개발 사업도 세부 사업내용으로 인재양성 혹은 교육훈련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도 주로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기반구축, 지방기술혁신사업,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지역혁신센터(RIC)사업, 광역선도산업육성사업 등이 있다³⁾. 이에 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사업은 국가주도의 인재육성만으로는 지역경제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수요에 기반한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인재육성정책의 주도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지역인재육성과 관련된 다른 정책과 차이가 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의 법적 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다. 동 법 제4조(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으로 “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 지방대학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채용장려제의 도입에 관한 사항
- 지방대학 우수 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및 산학연 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항

3) 각 사업에 대한 소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상의 사업들을 관계부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동 법에 근거하여 2009년도에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추구한 정책목적은 1)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제고, 2) 지방자치단체의 HRD 정책역량 강화(기획력, 네트워크 구축, 총괄·조정력), 3)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요에 근거한 인재육성사업 추진(지역별 특화산업 연계, 현장 맞춤형 사업, 지역인적자원개발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창의적 사업)이다⁴⁾.

성인지적 관점에서 위 세 가지 정책목적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목적의 경우, 일자리 창출은 주로 미취업 청년층, 성인 실업자, 여성 경력단절자가 주요 정책수요자라고 볼 수 있다. 주민의 삶의 질 제고는 일자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취업자의 직무능력 향상, 청년층 미취업자나 여성 경력단절자의 자신감과 미래 고용가능성 제고 등을 포함한다. 인재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욕구가 특정 집단에서 월등히 강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HRD 정책역량 강화라는 목적은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HRD 정책역량의 요소로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정책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근거한 사업추진은, 지역의 특화산업이 어떤 산업인가에 따라, 맞춤형 인재양성을 요구하는 산업현장이 어디인가에 따라, 그 지역의 미래 블루오션이 어떤 분야인가에 따라,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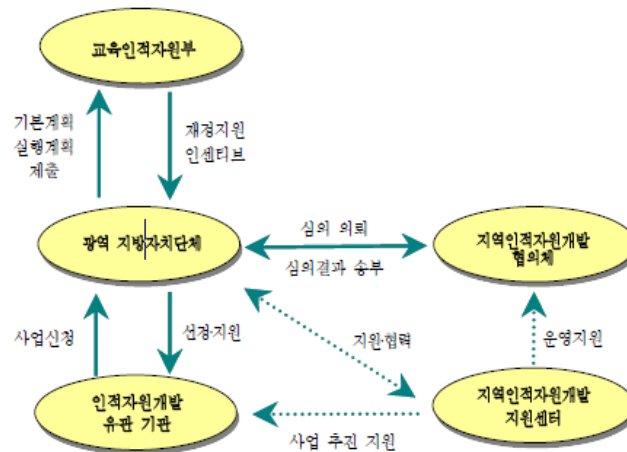
2. 사업내용

지역인재육성사업은 2002년과 2003년에 부산, 광주, 충북 교육청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주요 사업내용은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구성·운영, 시범지역별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관계자 연수 및 홍보, 관련

4) 교육과학기술부(2009. 1. 28.). 2009년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계획.

기초자료 수집 및 관리) 등이었다(이회수 외, 2003). 이회수 외의 연구는 1차년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후 과제는 수립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사업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보았다.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13개 시·도에 지역단위의 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수행되었다. 즉, 시·도별 정책책임관 및 담당부서 지정, 지역인적자원개발 협의회 구성, 시·도 발전연구원 내 RHRD지원센터 지정 등이 이루어졌다(표 Ⅱ-1). 시·도별 지역인적자원개발 협의회는 성격은 RHRD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기구로서 중앙과 지방의 HRD정책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가진다. 협의회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를 대표할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추진체계의 구축과 함께 시·도별 기본계획수립과 사업내용 개발이 이루어졌다.



자료: 손유미(2008). 재인용.

[그림 Ⅱ-1]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도

〈표 II-1〉 시도별 지역인적자원개발 협의회 및 RHRD 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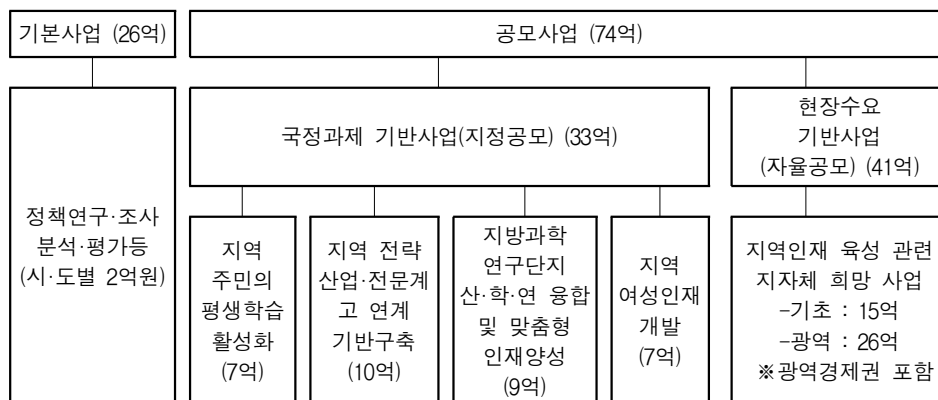
지역	협의체 명칭	RHRD지원센터
부 산	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	(재)부산인적자원개발원
대구·경북	대구경북 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	대구경북연구원
광주·전남	광주·전남 인적자원개발협의회	광주·전남발전 연구원
대 전	인적자원개발협의회	대전발전연구원
울 산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울산발전연구원
충 북	지방대육성 및 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	충북개발연구원
충 남	충남지역 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	(재)충남발전연구원
경 남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분과협의회	경남발전연구원
전 북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 과학기술·인적자원개발 분과협의회	전북발전연구원
제 주	지역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	제주발전연구원
강 원	지역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	강원지역인적 자원개발지원센터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RD-net.

2006년과 2007년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도의 우수 시범사업 사례 발표회를 열고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RHRD지원센터별 우수 사례로는 ‘경북북부권 귀농인력 역량강화사업(대구경북)’, ‘찾아가는 문화복지사업단 운영지원사업(대전)’, ‘다문화 가정 사회정착 지원사업(광주전남)’, ‘전북 멘토링 사업(전북)’, ‘공무원 혁신파트너 연수프로그램(강원)’, ‘장애인 압화공예 교육프로그램 운영(충북)’, ‘노인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문화해설사 및 목각공예사 양성사업(충남)’, ‘경남 공예기능인력 양성사업(경남)’, ‘중장년층 맞춤형 One-stop 창업지원사업(울산)’, ‘제주지역 도민자치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제주)’, ‘여성대상 전략산업인력양성(부산)’이 선정되었다. 그 밖에도 각 RHRD지원센터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명칭이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완료되었고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프로그램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있었으므로, 새 정부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사업을 재편하였다. 첫째, 국정철학인 ‘자율’과 ‘경쟁’ 원리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

하였다. 즉, 균등배분되었던 기본사업비(주로 단기 인력양성 프로그램 사업비)를 없애고, 전체 사업비(국비 100억) 중 공모사업비를 2007년에 30억원에서 2008년에 74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정책연구·조사분석·평가 등의 기본사업은 지역인재양성사업에 관한 정책연구개발 진작, 지역의 평생학습·고용·인적자원개발 관련 시계열 자료 DB화 및 업데이트, 시도 공동사업(사업평가 및 워크숍 개최 등)으로 구성된다. 둘째, 공모사업은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육성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재개발정책 의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도 작용하였다. 또한 단년도 사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우수사업에 대해 차년도에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의무화하였다. 이와 같은 개편 작업에 따라 2008년에 추진된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영역과 예산배분은 [그림 II-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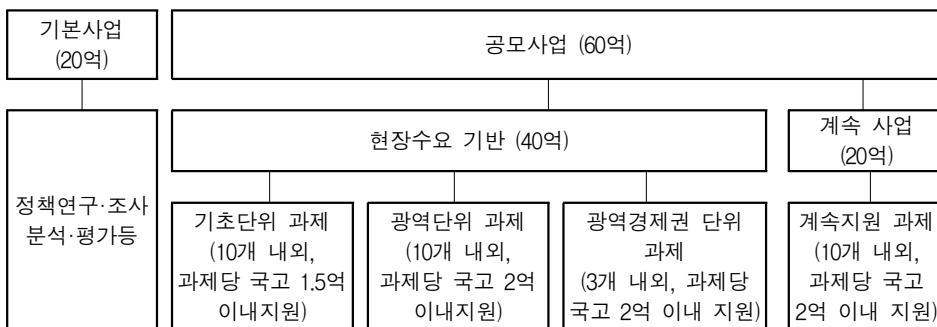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계획.

[그림 II-2] 2008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영역과 예산배분

2008년도 사업추진 결과 RHRD지원센터가 수행한 정책연구과제는 총 68건으로 센터 당 평균 5건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시·도별로 연구과제를 자율적으로 수행하여 전국 통계를 산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2008년에 수행된 공모사업 과제는 총 33개이며 협의회 운영과 같은 기반구

축과 교육과정 개발 등을 제외하면, 97개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본래의 사업취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RHRD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총괄조정, 행정지원,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으나, 공모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통로 역할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년에는 전체 사업비(국비)가 100억에서 80억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기본사업비는 26억에서 20억으로, 공모사업비는 74억에서 60억으로 감소했다. 2009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사업영역별 예산배분은 [그림 II-3]과 같다. 기본사업은 1) 정책기획 및 연구조사 2) 사·도 공동사업으로 구성되는데, 2008년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9년에는 정책기획 및 연구조사의 필수 과제를 <표 II-2>와 같이 지정하고, 전국단위의 연구가 필요한 경우 사·도 공통과제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2009년에 RHRD 지원센터가 수행한 정책연구과제 수는 모두 71개 과제로, 센터 당 평균 5.5과제를 수행하였다. 공모사업은 현장수요 기반사업과 계속사업(전년도 우수사업)으로 구분하고, 인력양성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 사례는 최장 3년(2010년)까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투자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였다. 2009년에 수행된 공모사업 과제 수는 모두 41개이다.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년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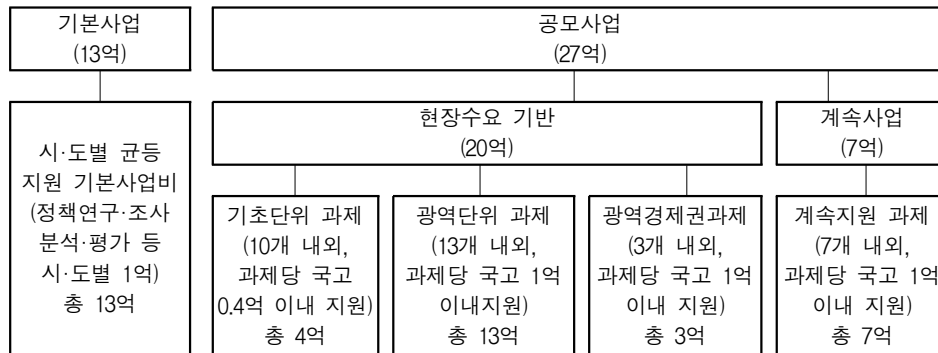
[그림 II-3] 2009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영역과 예산배분

〈표 Ⅱ-2〉 2009년 지역인재육성사업 기본사업의 내용

정책기획 및 연구조사 (필수과제)	시·도 공동사업
① 지역별 비교가능한 인적자원개발 지표/통계 조사(직능원의 인적자원개발지표 항목 기준) ☞ DB 업데이트와 연계, 홈페이지 탑재 ② 신성장 동력산업 및 녹색산업과 지역인재개발 실태 조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방안 ③ 차년도 지역 특화 인재육성사업 사전 조사 연구	① 공모사업 선정, 중간 점검, 최종성과 평가 ②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RHRD지원센터 공동 워크숍 및 중간보고회 개최 ③ RHRD-Net 운영 ④ 지역인재육성 담당자 교육(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 전문과정 개설) ⑤ 2008년도 추진 성과보고회 개최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년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계획.

2010년에는 2009년 대비 총 사업비(국고) 규모가 50% 감소되었다. 기본사업의 예산은 20억에서 13억(한 개 자치단체당 1억)으로 줄었다. 공모사업의 국고예산도 60억에서 27억으로 1/2 이상 줄었다(그림 Ⅱ-4). 이에 따라 공모사업의 과제 수가 31개로 감소했고, 과제당 국고 지원의 규모도 줄었다. 또한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투자를 5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추진결과에 대해 성과분석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 이수율,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을 등에 대한 조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13개 시·도 전체의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를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정리된 자료가 수집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0년도에는 사업 착수 시점에 성과분석에 사용될 평가지표와 지표별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 설명회 자료.

[그림 II-4] 2010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영역과 예산배분

최근 3년간 수행된 공모사업 수는 2008년에 33개, 2009년에 41개, 2010년에 31개이며, 각 연도별로 13개 시·도가 수행한 사업명 목록은 <표 II-3>과 같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정책목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사업은 시·도의 HRD 정책수행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에서 사업 내용을 결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중심으로 인력양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을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2008년도에는 지정공모(국정과제 기반)사업으로 여성인재개발사업 6개(7억원)가 수행되었다. 이때 수행된 과제는 ‘고학력 경력 단절의 유휴간호사 재교육 사업(강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고용창출 종합 프로젝트(경남)’, ‘지역 여성인재 육성사업(대전)’,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 여성인재 개발 프로그램 운영(제주)’, ‘다문화 여성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현장의 교류창구 역할 수행(충남)’, ‘충북 여성인재개발 사업(충북)’이다. 이상의 6개 사업 중에서 ‘충북 여성인재개발 사업(충북)’은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9년과 2010년까지 3개년 간 국고지원을 받았다. 2009년부터는 특별히 여성인재개발사업을 별도로 선정하지 않았다. 이는 특별히 여성관련 사업만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 삭감에 따라 사업구분을 변경한 것이다. 2009년에 여성관련 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았으나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원어민 강사 양성사업(대전)’, ‘방과후 프

로그랩 강사 양성사업(충북)', '외국인 관광 전문인력 양성(전북)' 등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그 밖의 공모사업에서도 사업내용의 성격상 대부분의 참여자가 여성인 사업들이 많다.

각 시·도는 매년 1개 내지 4개의 공모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하나의 공모사업은 대부분 여러 가지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2009년 강원도의 '횡성한우 명인 만들기 사업'은 식육처리, 식육가공, 한우공예품 등 3가지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도에 41개 공모사업을 통해 수행된 프로그램 수는 120가지이다(표 III-7 참조).

〈표 II-3〉 최근 3년간 시·도별 지역인재육성사업(공모사업)

지역	연도	공 모 사 업 명
부산	2008	Global 영상 인재육성 프로젝트 부산 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
	2009	부산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 해양수산 IT융합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동남권 지역특화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부산-규슈지역 초광역 IT전문인력양성
	2010	동남권 수요 적합형 디자인 인력양성사업 - CG, 제품, 출판디자인 분야 부산지역특화선박·해양플랜트기술인력양성사업
대구	2008	지역전략산업-전문계고 연계를 통한 마이스터고 육성사업 지능형자동차부품 산업밸리글로벌경쟁력강화를 위한 인재육성사업
	2009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 아동교육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대구광역시 IT융복합 의료기기 인력양성사업 대구경북 IT융합 지능로봇 현장전문 인력양성사업
	2010	대구광역시 첨단의료기기 전문인력양성사업
광주	2008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2009	남도 식문화 1인기업가 창업리더 육성사업 제병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형 창업취업 프로젝트
	2010	남도 음식문화 마케팅 육성사업 문화적다양성을활용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형취업·창업프로젝트 빛고을 김치문화 전문인 양성과정
대전	2008	<u>지역 여성인재 육성사업</u>
	2009	결혼이주여성 원어민강사 양성사업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 인적자원개발 육성사업

18 ●●●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지역	연도	공 모 사 업 명
	2010	대전시 R&D인프라 기반 융합형 문화산업기술(CT) 전문 인력 양성사업
울산	2008	지속가능발전 울주군 조성을 위한 인재양성사업 부·울·경 주력산업 맞춤형 학습-고용 연계 사업
	2009	울산시민을 위한 전국단위 문화탐방강사 양성사업 울산시 동구북구 제조업 고령퇴직자의 인생재설계를 위한 인재양성사업 부울경 주력산업 맞춤형 학습-고용연계사업
	2010	자동차 생산을 위한 로봇 OLP 생성 전문가 양성 교육
강원	2008	의료기기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강릉 과학산업단지 기업맞춤형 예비인력육성 지원사업 <u>고학력 경력 단절의 유유간호사 재교육 사업</u>
	2009	맞춤형 골프경기진행요원 양성사업 형성한우 명인 만들기 사업
	2010	녹색성장도시 조성을 위한 해양산업 잠수 전문인력 육성 형성한우 명인(名人) 만들기 사업 강원 동해안 지역특화상품 개발을 위한 창조기능인력 양성
충북	2008	반도체분야의 창의적 전문 인력 양성사업 오창 과학연구단지 산·학·연 융합 및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u>충북 여성인재개발 사업</u> 실험동물 전문 인력 양성사업
	2009	충북 여성인재육성 사업 신성장동력U-헬스케어 인재양성사업 반도체 태양과 기반기술 인재육성사업
	2010	생애주기별 충북 여성인재육성 사업 충북 항공기정비서비스(Maintenance Repair Overhaul)센터 조성 계획에 따른 항공기술 인재양성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 양성
충남	2008	전문계 고교·대학·기업과 연계한 철강 산업 핵심인력 양성 <u>다문화 여성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 현장의 교류창구 역할수행</u> 충청남도 산업인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취업 Mismatch 해결
	2009	No-RHRD를 통한 아산시 창의적 지역인재육성 개발 사업 인재육성을 통한 서해안 희망찾기 프로젝트 충청권 신경제 성장동력으로서 국방산업 인재육성 및 교육, 고용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2010	국제 휴양관광 도시형 글로벌 사무·서비스 인력양성 사업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3D 입체영상 기술인력 양성과정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민군겸용기술 특화 전문인력 육성 및 고용창출 사업
전북	2008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문계고 맞춤형 인력육성 전북 과학연구단지 산/학/연 융합 및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전북-시·군 연계(식품산업) 인재육성 F-HRD 프로젝트

지역	연도	공 모 사 업 명
	2009	군산 근대문화 전문인력양성사업 전북 시·군 연계(식품산업) 인재육성 F-HRD프로젝트 전북과학연구단지 산·학·연 융합 및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탄소경량화 소재/ 부품/제품 설계 및 신뢰성평가 전문가 육성
	2010	결혼이주여성 활용 외국인 관광 전문인력 양성 풍산업 인재육성사업 전북-시·군연계(식품산업)인재육성F-HRD프로젝트 탄소경량화 소재/부품/제품 설계 및 신뢰성 평가 전문가 육성
전남	2008	소외계층 취업률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조선 실무전문가 인재육성사업(목포공고) 한옥건축 인재육성사업 생명 농업 전문 경영자 육성
	2009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전문자원봉사자 인력 양성 사업 해양레저장비산업 인재육성사업 한옥건축인재육성사업
	2010	신한옥건축기술자양성사업 맞춤형 해양레저장비산업 현장전문 인재육성사업
경북	2008	지자체간 평생학습벨트조성을 통한 지역주민 평생학습 활성화사업 Eco-Town 조성을 위한 지역수요 기반 인재육성 사업 특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산촌형 지역인재 육성사업
	2009	초고령사회 GB60+ 인재양성사업 신라, 유교문화권 컬처텔러 양성사업 레포트츠산업 인재양성사업 경상북도 백두대간 그린투어 숲문화해설사 양성사업
	2010	신라·유교문화권 컬처텔러 양성사업 레포트츠 코디네이터 양성사업 전통 종가음식 전문인력 양성사업
경남	2008	<u>경남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고용창출 종합 프로젝트</u> 항공우주산업 인재육성 클러스터
	2009	그린스포츠 운영전문가 勵志(2G) 양성사업 로봇랜드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항공우주산업 인재육성 클러스터 선박검사 기술자 양성 사업
	2010	거창 승강기산업 밸리 조성 관련 “전문 승강기 엔지니어 육성 사업”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인력 양성사업
제주	2008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활성화(평생학습계좌제로 운영) <u>경력단절여성의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여성인재개발 프로그램 운영</u> 3명 뷰티테라피 관광네트워킹 인재육성 사업
	2009	제주 Green-up 지역 만들기 인재육성 사업 21세기 제주 블루골드 물자원 산업화를 위한 인재육성사업

지역	연도	공 모 사 업 명
		3Eco 관광네트워크킹 지역인재육성사업
	2010	지역 재설계를 위한 특화인재육성 3Eco 관광네트워크킹 지역인재육성 사업 제주형 휴양도시 Hydro 인재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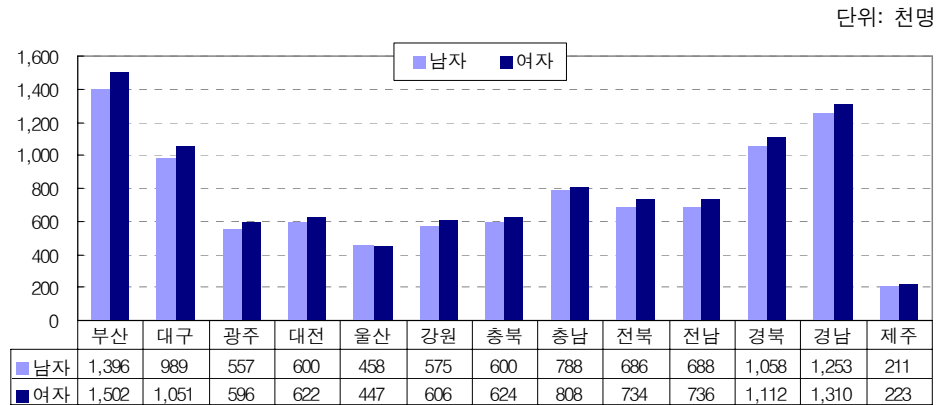
주: 이탤릭체와 밑줄로 표시한 사업은 2008년도에 지역여성인재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며, 굵은 글씨로 표시한 사업은 전년도에 사업성도가 우수하여 해당 연도에 계속 사업으로 선정된 것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연도별 사업명 목록을 편집한 것임).

3. 정책대상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정책대상은 학령인구와 성인을 포함한 지역의 모든 주민이다. 이 사업의 예산이 성별로 공평하게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식으로 배분 및 활용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려면, 먼저 성별로 정책대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지역인재육성사업의 공모사업에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나 여성에게 투자된 예산규모를 분석할 예정인데, 그러한 비율이나 예산규모가 바람직한 수준인가를 판단하려면 정책대상 인구의 성비와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기초통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초통계가 전국 단위로 생산된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시·도별 통계는 찾기 어려우므로 이 연구에서 간략하게 분석해 보았다.

먼저 13개 시·도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와 여성 비율을 살펴보았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정책대상이 학령인구와 성인을 포함한 지역의 모든 주민이지만, 공모사업이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므로, 주요 정책대상은 경제활동인구라고 할 수 있다. 13개 시·도의 경제활동인구는 2,022만 9천명이며 여성 비율은 51.3%이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수행하는 13개 시·도별 경제활동인구 수를 살펴보면, 부산(140만), 경남(125만), 경북(106만), 대구(99만)의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많으며, 여성 인구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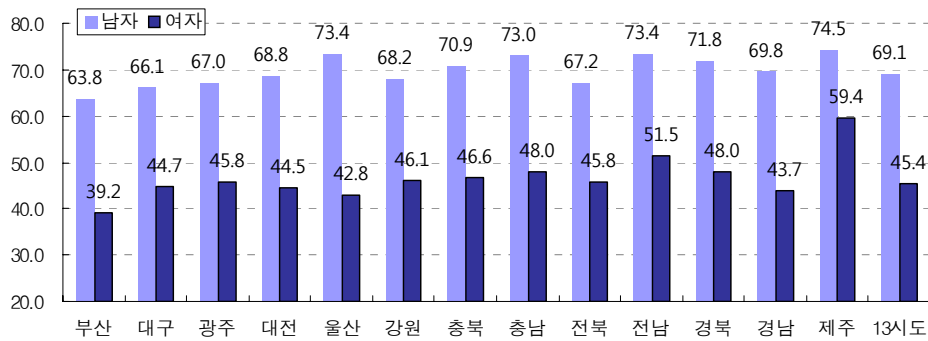
주: 16개 시·도를 모두 비교할 경우 서울과 경기의 인구규모가 매우 커서 나머지 시·도 간의 비교가 어려우므로,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시·도에 한정하여 자료를 제시함.

자료: 통계청, 2009년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Ⅱ-5] 13개 시·도의 경제활동인구 규모 비교

경제활동인구 수가 많아도 그들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정책수요와 그 내용이 내용이 다를 것이다. 정책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취업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취업자의 수요는 능력제고, 혹은 이직이나 전직 준비 등 일 것이고, 미취업자나 실업자는 수료 후 취업이 가능한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13개 시·도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은 남성이 69.1%이고 여성이 45.4%이다. 남성의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가 69.1%이므로 취업자 대상 사업의 수요가 여성보다 클 것이고, 여성은 45.4%만이 취업자이므로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나 실업자 대상 사업의 수요가 클 것이다.

22 ●●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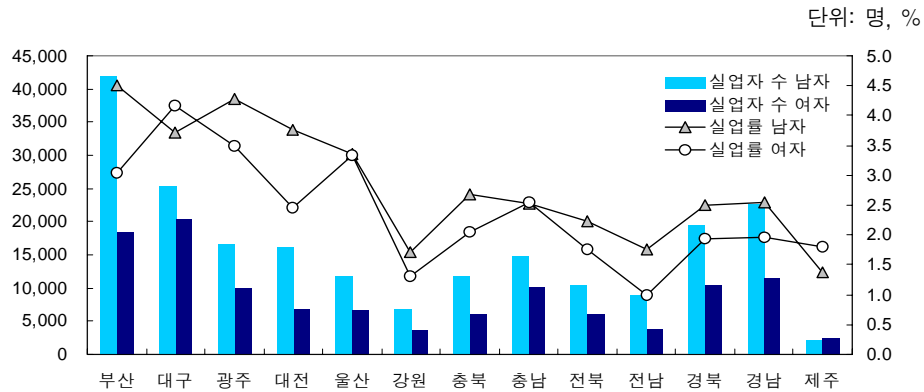
주: 고용률 = 취업자/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자료: 통계청, 2009년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II-6] 13개 시도 경제활동인구의 성별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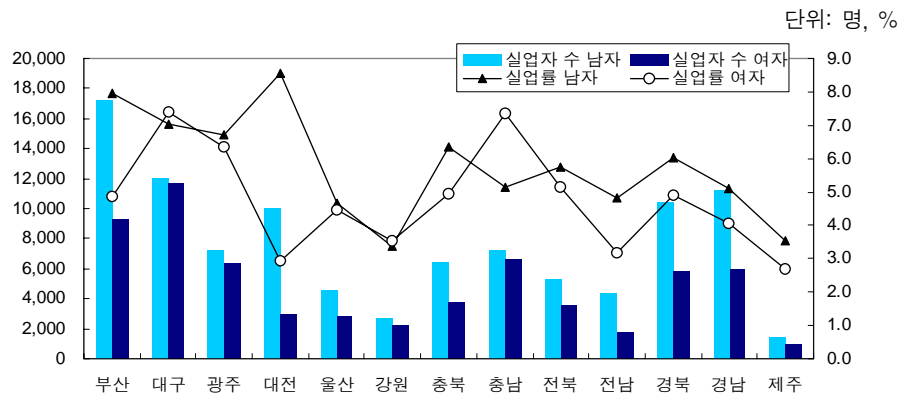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촉진 이외에도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HRD역량 강화 등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정책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촉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정책의 주요 대상은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라고 할 수 있다. 미취업자 중에서도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취업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에 반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에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인구가 상당히 존재한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 수가 많은 지역(부산, 대구, 경북, 경남)은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큰 지역이다. 여성의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낮으나, 대구와 제주 지역에서는 여성의 실업률이 더 높다(그림 II-7). 청년층 실업자 수가 많은 지역(부산, 대구, 경북, 경남)도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큰 지역이다. 대전과 부산은 남자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고, 충남과 대구는 여자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다(그림 II-8).



주: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참가자
 자료: 통계청, 2009년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II-7] 13개 시·도의 성별 실업자 수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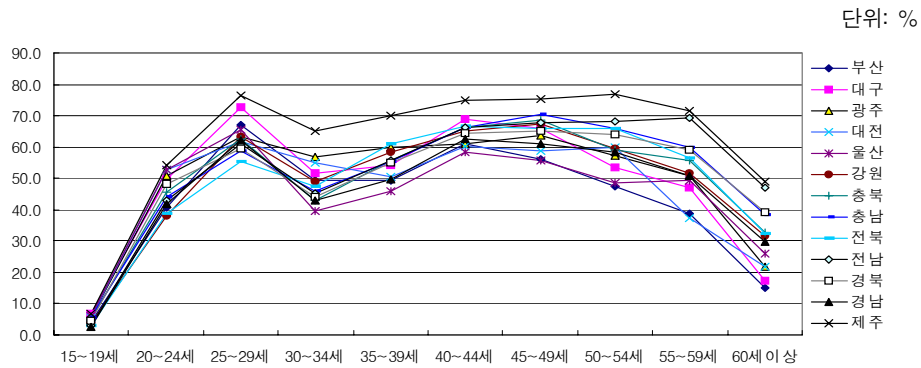
주: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참가자
 자료: 통계청, 2009년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II-8] 13개 시·도의 34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자 수 및 실업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M자형 커브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30대 초반에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다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육아, 가사로 인한 30대 초반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이미 경력단절을

24 ●●●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경험한 여성들이 재취업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M형 커브는 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그림 II-9, 표 II-4 참조).



자료: 통계청, 2009년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II-9] 13개 시·도의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표 II-4〉 16개 시·도의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지역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부산	4.3	40.7	67.2	49.5	49.2	60.8	56.0	47.5	38.7	15.0
대구	6.9	49.7	72.6	51.6	54.1	69.0	65.9	53.3	46.9	17.3
광주	5.8	50.8	63.1	56.8	59.9	60.9	63.6	57.2	51.0	21.7
대전	5.6	52.8	61.9	55.1	50.4	60.3	58.8	59.8	37.4	21.9
울산	5.9	52.8	65.3	39.6	45.9	58.4	55.8	48.4	49.4	26.0
강원	3.8	38.0	63.2	49.1	58.2	65.2	67.5	59.5	51.5	31.6
충북	5.1	45.7	62.4	43.0	55.8	66.2	68.7	59.2	55.8	32.7
충남	5.8	44.0	58.6	45.9	55.4	66.4	70.6	65.7	60.0	38.4
전북	2.9	38.8	55.4	47.3	61.1	66.8	65.8	66.1	56.6	32.5
전남	3.1	42.9	61.2	45.4	55.8	66.1	67.9	68.1	69.3	47.0
경북	4.3	48.4	59.4	43.9	55.1	64.4	65.0	64.1	59.0	39.3
경남	2.5	41.7	62.0	42.9	49.9	62.4	60.8	58.4	50.7	29.8
제주	6.9	54.1	76.6	65.3	70.1	74.8	75.5	76.7	71.6	49.1

자료: 통계청, 2009년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 부산은 2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편이나 30대 초반부터 많이 떨어지고 40대 이후로는 전국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 대구는 2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편이나 30대에 많이 떨어졌다가 40대 초반에 가장 높은 회복율을 보인다. 그러나 50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은 편이다.
- 광주·경북은 M자형 커브에서 3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가장 적은 곳이나 전체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지는 않다.
- 대전은 20대 초반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편이나 20대 중반은 중간 정도이고 30대 초반보다 30대 후반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낮다.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 다소 회복되기는 하지만 50대 이후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 울산은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아주 높은 편이나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최하위이고, 이후 50대까지 회복이 미약하다.
- 강원도는 전형적인 M자형 커브를 이룬다. 즉 20대 후반에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30대 초반에 가장 낮게 떨어졌다가 이후 회복되어 4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대 후반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는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편이며, 3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만 이후 회복되어 4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대 후반보다 더 높다.
- 전라도도 충청도와 유사하다. 다만, 전북의 경우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므로 3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충청도만큼 심하지 않다. 40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충청도보다 대체로 더 높다.
- 경상도의 경우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울산 다음으로 가장 낮다. 40대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회복되어 20대 초반 수준에 이르나, 경북보다 경남의 40대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다.
- 제주도는 20대 이후 전 연령층에 걸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져

M자형 커브를 이룬다. 그러나 40대 초반까지 이를 회복하여 50대 후반 까지도 70%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다.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성별과 연령층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성의 경우 20대의 32.8%, 30대의 93.0%, 40대의 89.0%, 50대 이상의 72.4%가 육아나 가사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반면에 성인 남자는 취업준비, 심신장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단순히 쉬었다는 응답자가 많다. 20대 이하 남자 청년층의 경우에는 정규교육기관 취업, 학원, 취업준비, 진학준비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많다.

〈표 Ⅱ-5〉 연령층별 비경제활동의 주요 활동

단위: %

주요 활동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일하였음	0.0	0.1	0.1	0.1	0.1	0.0	0.0	0.0	0.1	0.2	0.1	0.1
구직활동	0.0	0.3	0.7	0.7	0.1	0.2	0.0	0.1	0.0	0.0	0.0	0.0
발령대기	0.1	0.2	0.2	0.0	0.0	0.1	0.0	0.1	0.0	0.0	0.0	0.0
육아	0.0	0.0	0.4	0.1	0.0	0.0	0.1	21.2	50.7	5.2	1.1	12.8
가사	0.1	0.2	3.0	6.9	5.6	2.7	0.2	11.6	42.3	89.0	72.4	52.1
정규교육기관 통학	94.6	63.4	6.2	0.6	0.1	42.7	96.0	43.9	0.8	0.3	0.1	18.7
입시학원 통학	1.5	1.0	0.0	0.0	0.0	0.7	1.2	0.7	0.0	0.0	0.0	0.3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통학	0.1	6.2	11.4	1.0	0.1	2.1	0.2	4.7	1.0	0.6	0.0	0.9
취업준비	0.1	10.2	19.3	4.6	0.3	3.7	0.3	6.6	0.8	0.2	0.0	1.1
진학준비	1.1	4.4	0.5	0.2	0.0	1.4	1.2	1.8	0.1	0.0	0.0	0.4
연로	0.0	0.0	0.0	0.0	51.5	19.3	0.0	0.0	0.0	0.0	20.8	8.7
심신장애	0.2	1.9	12.7	24.8	10.3	6.3	0.1	1.0	1.2	1.7	3.0	1.9
군입대 대기	1.4	2.1	0.0	0.1	0.0	0.9	0.0	0.0	0.0	0.0	0.0	0.0
결혼 준비	0.0	0.0	0.2	0.0	0.0	0.0	0.0	1.2	0.5	0.0	0.0	0.2
쉬었음	0.6	9.5	43.2	58.6	31.0	19.2	0.5	6.6	2.3	2.3	2.0	2.5
기타	0.1	0.6	2.0	2.2	0.9	0.7	0.1	0.5	0.2	0.3	0.2	0.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2009년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비경제활동인구 중에는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이 취업할 경우 어떤 일자리를 희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희망하는 산업분야, 직업분야, 고용형태, 월평균 소득을 분석해 보았다.

남성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전 연령대에 걸쳐 주로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이고, 그 다음으로 30대 이하의 청장년층은 전기, 가스, 하수, 폐기물 처리, 운수, 방송통신업,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을, 40-50대는 건설업이 많다. 직업으로는 청년층의 경우 관리직,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희망자가 많고, 40세 이상은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 이에 비해 여성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전 연령층에 걸쳐 남정보다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희망자도 20-30% 정도이다.

〈표 Ⅱ-6〉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분야(산업)

단위: %

산업분야		15~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전체
남 자	농업, 임업 및 어업	0.3	0.8	0.8	1.6	1.4	4.0	1.4
	광업, 제조업	3.0	12.7	13.8	16.2	12.8	5.5	12.5
	건설업	0.2	4.9	9.2	23.4	32.3	18.0	14.9
	도,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24.9	12.0	12.9	10.4	4.9	3.8	10.1
	전기, 가스업, 하수, 폐기물 처리업, 운수업, 방송통신 등	23.7	34.1	23.0	20.5	14.5	5.8	22.3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47.9	35.5	40.4	27.8	34.0	62.8	38.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명)	15,057	234,953	203,157	141,843	128,875	103,847	827,732
여 자	농업, 임업 및 어업	0.5	0.2	0.6	0.9	1.9	4.8	1.2
	광업, 제조업	4.2	5.1	7.8	8.7	6.6	2.9	6.4
	건설업	1.4	1.7	1.6	1.0	2.2	0.8	1.5
	도,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26.0	12.0	19.8	29.8	36.3	22.9	22.7
	전기, 가스업, 하수, 폐기물 처리업, 운수업, 방송통신 등	9.0	20.0	11.2	5.3	2.9	1.7	10.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59.0	61.0	59.0	54.3	50.0	66.8	58.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명)	18,135	184,755	159,262	145,922	99,185	74,960	682,219

자료: 통계청, 2009년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표 Ⅱ-7〉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분야(직업)

단위: %

직업		15~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전체
남 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3	30.1	24.0	20.6	18.4	9.5	22.3
	사무 종사자	16.6	25.3	20.9	8.4	4.0	4.7	15.3
	서비스, 판매 종사자	41.5	21.5	24.3	18.0	12.1	9.8	19.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0	0.2	0.2	1.4	1.2	1.6	0.7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25.6	22.9	30.5	51.6	64.3	74.4	4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사례수(명)	15,059	234,953	203,155	141,844	128,874	103,847	827,732
여 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0.5	28.9	22.0	10.0	4.8	1.2	16.5
	사무 종사자	23.9	38.6	31.1	14.2	4.4	2.3	22.3
	서비스, 판매 종사자	47.4	25.5	34.2	44.1	39.2	16.9	33.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0	0.4	0.1	0.4	0.4	1.3	0.4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8.1	6.6	12.7	31.4	51.2	78.4	27.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명)	18,134	184,755	159,261	145,922	99,185	74,959	682,216

자료: 통계청, 2009년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고용형태 측면에서는 남성의 경우 15-19세만이 시간제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46.2%이고, 50대 후반까지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70-80% 이상이 전일제 일자리를 희망한다. 60세 이상의 남성은 34.9%가 시간제 일자리를 희망한다. 이에 비해 여성은 20-29세에서만 83.1%가 전일제 일자리를 희망하고, 50대 후반까지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30-50% 정도가 시간제 일자리를 희망한다. 60세 이상 여성은 68.8%가 시간제 일자리를 희망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40대 이상의 비경제활동 여성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가 가능한 일자리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Ⅱ-8〉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희망하는 고용상의 지위 및 고용형태

고용상 지위 및 고용형태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전체
남자	임금근로자	시간제	46.2	8.3	5.8	8.2	10.6	34.9	12.0
		전일제	49.0	87.7	80.2	73.4	77.8	58.2	77.5
	비임금 근로자		4.8	4.0	14.0	18.4	11.6	6.9	10.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명)		15,058	234,952	203,157	141,842	128,875	103,941	827,825
여자	임금근로자	시간제	50.2	14.3	34.6	40.2	49.0	68.8	36.6
		전일제	48.2	83.1	56.9	48.5	42.8	25.8	56.5
	비임금 근로자		1.6	2.6	8.6	11.3	8.2	5.5	7.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명)		18,135	184,755	159,263	145,922	99,184	74,959	682,218

자료: 통계청, 2009년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할 경우, 희망하는 임금은 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이다. 19세 이하 청소년층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의 기대수준이 약간 더 높다. 그러나 30대 이상은 남성의 기대수준이 훨씬 높다. 20대 여성의 70.2%, 30대 여성의 57.6%, 40대 여성의 55.2%, 50대 여성의 40.4%가 월평균 100-200만원의 소득을 희망한다.

〈표 Ⅱ-9〉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월평균 희망소득

희망 월 소득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남자	50만원 미만~100만원 미만	44.3	4.7	1.4	3.4	7.0	46.9	10.0
	100~200만원 미만	28.4	58.6	47.6	42.0	57.5	43.3	50.4
	200~300만원 미만	19.0	33.9	42.2	44.8	29.0	9.0	33.7
	300~400만원 이상	8.3	2.7	8.7	9.8	6.5	0.8	5.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명)	15,058	234,951	203,157	141,842	128,874	103,848	827,730
여자	50만원 미만~100만원 미만	35.0	9.8	26.5	33.8	53.7	85.2	34.1
	100~200만원 미만	54.4	70.2	57.6	55.2	40.4	13.4	53.0
	200~300만원 미만	6.9	18.4	13.9	8.5	5.2	1.0	11.1
	300~400만원 이상	3.7	1.6	2.0	2.6	0.8	0.4	1.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명)	18,134	184,754	159,262	145,923	99,185	74,960	682,218

자료 : 통계청, 2009년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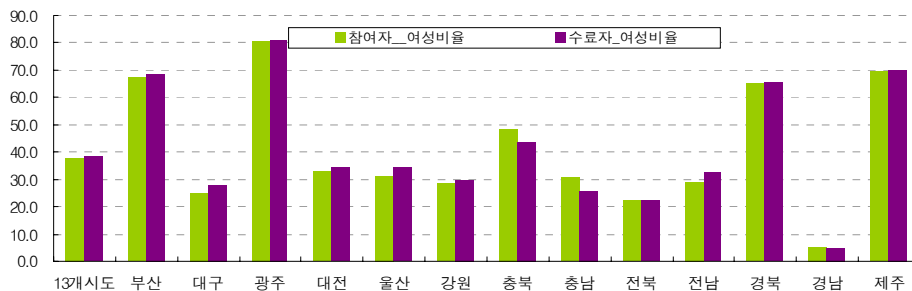
여성 참여 실태와 성인지적 예산분석

1. 여성 참여 실태	33
2.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인지적 예산분석	38

1. 여성 참여 실태

가. 지역별 여성 참여율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여성 참여 실태와 성인지적 예산분석은 자료의 한계로 2009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은 [그림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사업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중에 공모사업으로 수행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다. 2009년에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총 11,232명이며 여성은 4,276명으로 38.1%를 차지한다. 프로그램 수료자는 총 9,910명이며 여성은 3,804명(38.4%)이다. 수료율은 전체 88.2%, 여성 89.0%로 여성이 약간 더 높다. 이 사업에 여성 참여자 비율(38.1%)은 경제활동인구의 여성 비율(51.3%)에 비하여 매우 낮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여성 참여자 비율은 시·도별로 큰 차이가 있다. 가장 높은 곳은 광주(80.7%), 제주(69.3%), 부산(67.2%), 경북(65.2%) 등이고, 대구(25.0%)와 경남(5.5%)은 매우 낮다(그림 III-1, 표 III-1).



자료: 각 시·도의 사업결과보고서

[그림 III-1] 13개 시·도 지역인재육성사업(공모사업)의 여성 참여율

〈표 Ⅲ-1〉 13개 시·도 지역인재육성사업(공모사업)의 여성 참여율

단위: 명, %

지역	참여자			수료자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부산	670	450	67.2	641	441	68.8
대구	1,078	270	25.0	957	270	28.2
광주	523	422	80.7	515	417	81.0
대전	300	99	33.0	257	88	34.2
울산	731	229	31.3	466	159	34.1
강원	140	40	28.6	107	32	29.9
충북	352	171	48.6	299	130	43.5
충남	1,102	341	30.9	1,070	276	25.8
전북	2,299	514	22.4	1,981	440	22.2
전남	888	256	28.8	799	261	32.7
경북	592	386	65.2	535	351	65.6
경남	1,056	58	5.5	1,016	51	5.0
제주	1,501	1,040	69.3	1,267	888	70.1
13개 시도	11,232	4,276	38.1	9,910	3,804	38.4

자료: 각 시·도의 사업결과보고서

나. 공모사업분야별 여성 참여율

여성 참여자 비율의 격차는 공모사업의 분야별로도 차이가 크다.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여성 참여자 비율이 60.1%로 상당히 높은 편이나,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29.9%에 불과하다. 또한 전년도에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 계속 지원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도 여성 참여자 비율이 34.6%이다. 앞에서 살펴본 지역별 여성 참여자 비율의 격차는 각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공모분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Ⅲ-2〉 지역인재육성사업 공모분야별 여성 참여율

단위: 명, %

공모분야	참여자			수료자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기초자치단체사업	2,315	1,391	60.1	2,156	1,289	59.8
광역자치단체사업	4,231	1,265	29.9	3,871	1,174	30.3
계속사업 (전년도 우수사업)	4,686	1,620	34.6	3,883	1,341	34.5
합 계	11,232	4,276	38.1	9,910	3,804	38.4

자료: 각 시·도의 사업결과보고서

다. 사업별 및 프로그램별 여성 참여율

41개 사업단위별로 여성 참여자 비율을 살펴보면 0%에서 100%까지 다양하다. 사업단위별 여성 참여자 비율은 사업내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여성 인력의 수요가 많고 여성들의 관심도 높은 분야의 사업에는 여성 참여자 비율이 높다. 여성 인력 수요가 적은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관심도 낮고 따라서 여성 참여자 비율도 낮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업 진출의 분야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여성들에게 비전통적인 분야에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Ⅲ-3〉 13개 시도 지역인재육성사업(공모사업) 프로그램별 여성 참여율

단위: 명, %

지역	시도 사업명	참여자			수료자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강원	맞춤형 골프경기진행요원 양성사업	80	28	35.0	55	25	45.5
	횡성한우 명인 만들기 사업	60	12	20.0	52	7	13.5
경남	그린스포츠 운영전문가 關志(2G) 양성사업	50	26	52.0	43	22	51.2
	로봇랜드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190	11	5.8	176	9	5.1
	항공우주산업 인재육성 클러스터	765	20	2.6	751	20	2.7
	선박검사 기술자 양성 사업	51	1	2.0	46	0	0.0
경북	초고령사회 GB60+ 인재양성사업	146	124	84.9	133	122	91.7

지역	시도 사업명	참여자			수료자		
		전체	여성	여성 비율	전체	여성	여성 비율
	신라, 유교문화권 컬처텔러 양성사업	230	147	63.9	210	136	64.8
	레포츠산업 인재양성사업	116	63	54.3	93	42	45.2
	경상북도 백두대간 그린투어 숲문화해설사 양성사업	100	52	52.0	99	51	51.5
광주	남도 식문화 1인기업가 창업리더 육성사업	206	184	89.3	200	181	90.5
	제병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163	136	83.4	161	134	83.2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아시아 문화중심도 시행 창업취업 프로젝트	154	102	66.2	154	102	66.2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 아동교육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187	113	60.4	187	113	60.4
	대구광역시 IT융복합 의료기기 인력양성사업	465	157	33.8	434	157	36.2
	대구경북 IT융합 지능로봇 현장전문 인력양성사업	426	0	0.0	336	0	0.0
대전	결혼이주여성 원어민강사 양성사업	33	33	100.0	33	33	100.0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 인적자원개발 육성사업	267	66	24.7	224	55	24.6
부산	부산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	426	324	76.1	416	321	77.2
	해양수산 IT융합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90	51	56.7	83	51	61.4
	동남권 지역특화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사업	124	65	52.4	115	60	52.2
	부산-규슈지역 초광역 IT전문인력양성	30	10	33.3	27	9	33.3
울산	울산시민을 위한 전국단위 문화탐방강사 양성 사업	99	99	100.0	76	76	100.0
	울산시 동구북구 제조업 고령퇴직자의 인생 재설계를 위한 인재양성사업	241	65	27.0	229	62	27.1
	부울경 주력산업 맞춤형 학습-고용연계사업	391	65	16.6	161	21	13.0
전남	2012여수세계박람회 전문자원봉사자 인력 양성 사업	300	203	67.7	306	216	70.6
	해양레저장비산업 인재육성사업	290	32	11.0	276	29	10.5
	한옥건축인재육성사업-한옥기술자 신규 및 전문기술 재교육	298	21	7.0	217	16	7.4
전북	군산 근대문화 전문인력양성사업	50	38	76.0	39	31	79.5
	전북 시, 군 연계(식품산업) 인재육성 F-HRD 프로젝트	618	300	48.5	511	262	51.3
	전북과학연구단지 산, 학, 연 융합 및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489	164	11.0	1,289	135	10.5
	탄소경량화 소재/ 부품/제품 설계 및 신뢰성평가 전문가 육성	142	12	8.5	142	12	8.5

지역	시도 사업명	참여자			수료자		
		전체	여성	여성 비율	전체	여성	여성 비율
제주	3Eco 관광네트워킹 지역인재육성사업	674	652	96.7	567	551	97.2
	제주 Green-up 지역 만들기 인재육성 사업	310	170	54.8	236	139	58.9
	21세기 제주 블루골드 물자원 산업화를 위한 인재육성사업	517	218	42.2	464	198	42.7
충남	No-RHRD를 통한 아산시 창의적 지역인재육성 개발 사업	90	70	77.8	78	25	32.1
	인재육성을 통한 서해안 희망찾기 프로젝트	633	264	41.7	613	244	39.8
	충청권 신경제 성장동력으로서 국방산업 인재육성 및 교육, 고용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379	7	1.8	379	7	1.8
충북	2009충북여성인재육성사업	136	136	100.0	95	95	100.0
	신성장동력U-헬스케어 인재양성 사업	68	17	25.0	66	17	25.8
	반도체 태양과 기반기술 인재육성사업	148	18	12.2	138	18	13.0
13개 시도		11,232	4,276	38.1	9,910	3,804	38.4

주: 참여율과 수료율의 격차는 중도탈락자 때문임. 중도탈락자 중에는 프로그램 수료 이전에 취업이 된 경우도 있음. 미국 발 경제위기로 정부가 대략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여 프로그램 참여자의 일부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이동한 경우도 발생하였음.

자료: 각 시·도의 사업결과보고서

41개 공모사업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별 여성 참여자 비율도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여성의 수요,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 참여자 비율별로 프로그램을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남성 참여자가 대다수를 이루는 프로그램이 많다. 여성 참여율이 25% 미만인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가 5,369명으로 전체의 47.8%를 차지한다. 반대로 여성 참여율이 75% 이상인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는 2,473명(22.0%)이다.

〈표 Ⅲ-4〉 2009년 공모사업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여성 참여율별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프로그램의 여성 참여율	참여자				수료자			
	전체		여성		전체		여성	
	명	%	명	%	명	%	명	%
100~75%이상	2,473	22.0	2,239	52.5	2,230	22.5	1,969	51.8
75미만~50%이상	1,727	15.4	984	23.1	1,562	15.8	917	24.1
50%미만~25%이상	1,652	14.7	553	13.0	1,522	15.4	540	14.2
25%미만~0%	5,369	47.8	487	11.4	4,596	46.4	378	9.9
합계	11,221	100.0	4,263	100.0	9,910	100.0	3,804	100.0

자료: 각 시·도의 사업결과보고서

2.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인지적 예산분석

가. 지역별 여성 수혜율

2009년도 공모사업의 총 지출예산은 96억 7,700만원(국고지원 60억 포함)이며, 그 중 프로그램 운영에 지출된 예산은 76억 9,300만원이다. 인재양성 프로그램별 지출예산을 참여자 수로 나누어 1인당 단가를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남성과 여성의 수혜 금액을 산출한 결과, 전체 프로그램 지출예산의 41.3%가 여성 참여자를 위해 사용되었다. 이는 여성 참여자 비율(38.1%)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1인당 단가가 높은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에게 활용된 예산의 비율은 여성 참여자 비율과 유사하다. 대구,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남은 여성 참여율보다 여성에게 사용된 예산 비율이 더 크다.

〈표 Ⅲ-5〉 2009년도 공모사업분야 예산규모 및 여성 수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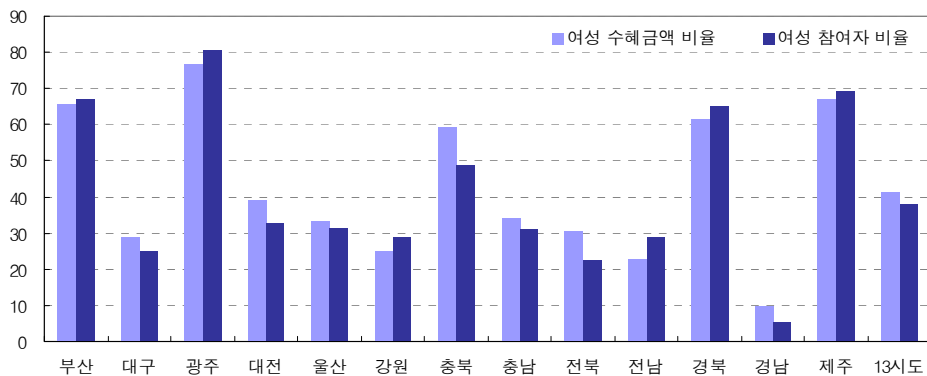
단위: 천원, %

지역	공모사업 예산	프로그램 예산				참고 (여성참여 비율)
		전체 (A+B)	남성 수혜액(A)	여성 수혜액(B)	B/(A+B)	
부산	1,081,000	864,474	296,947	567,527	65.6	67.2
대구	463,499	443,499	316,603	126,896	28.6	25.0
광주	574,000	438,997	102,805	336,192	76.6	80.7
대전	346,000	345,910	210,787	135,123	39.1	33.0
울산	799,940	566,720	379,207	187,513	33.1	31.3
강원	380,000	380,000	284,500	95,500	25.1	28.6
충북	1,235,350	375,562	153,047	222,515	59.2	48.6
충남	479,309	427,198	279,953	147,245	34.5	30.9
전북	1,353,505	1,215,384	842,148	373,236	30.7	22.4
전남	780,000	684,735	528,278	156,457	22.8	28.8
경북	594,000	509,040	195,640	313,400	61.6	65.2
경남	833,029	793,024	714,546	78,478	9.9	5.5
제주	758,000	649,036	213,595	435,441	67.1	69.3
13개시도	9,677,632	7,693,579	4,518,057	3,175,522	41.3	38.1

주1: 공모사업 예산은 국고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를 합한 것임. 일부 자치단체의 프로그램 예산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적은 예산 포함되어 있으나, 그 액수는 크지 않음. 결과보고서에 지출예산이 분리되지 않았음.

주2: 수혜액은 프로그램별 1인당 단가에 참여인원을 곱한 값의 합임.

자료: 각 시·도의 사업결과보고서



자료: 각 시·도의 사업결과보고서

[그림 Ⅲ-2] 13개 시도 지역인재육성사업 여성 참여율과 수혜 예산 비율

나. 공모사업분야별 여성 수혜율

공모사업의 분야별로 지출예산을 분석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의 58.3%가 여성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프로그램의 여성 참여율(60.1%)보다 약간 낮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사업의 경우에 여성들이 1인당 단가가 낮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사업과 계속사업에서 여성에게 투자된 예산은 여성 참여율보다 높다. 즉, 광역자치단체사업의 경우 여성 참여자 비율은 29.9%이나, 예산은 여성들이 31.4%를 사용하였다. 계속사업의 여성 참여율은 34.6%이나 예산은 여성들이 41.6%를 사용하였다.

〈표 Ⅲ-6〉 공모분야별 인재양성 프로그램 예산규모 및 여성 수혜율

공모분야	프로그램 예산(천원)				참고 (여성참여 비율)
	전체 (A+B)	남성 수혜액(A)	여성 수혜액(B)	여성비율 B/(A+B)	
기초자치단체사업	1,758,149	732,321	1,025,828	58.3	60.1
광역자치단체사업	3,142,040	2,154,532	987,508	31.4	29.9
계속사업 (전년도 우수사업)	2,793,390	1,631,204	1,162,186	41.6	34.6
합 계	7,693,579	4,518,057	3,175,522	41.3	38.1

주1: 공모사업 예산은 국고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를 합한 것임. 일부 자치단체의 프로그램 예산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적은 예산 포함되어 있으나 그 액수는 크지 않음. 결과보고서에 지출예산이 분리되지 않았음.

주2: 수혜액은 프로그램별 1인당 단가에 참여인원을 곱한 값을 합함.

자료: 각 시·도의 사업결과보고서

다. 프로그램별 여성 수혜율

인재양성 프로그램별로 여성에게 활용된 예산을 살펴보면 <표 Ⅲ-7>과 같다. 1인당 예산은 최소 76,000원부터 최대 4,167,000원까지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많다. 1인당 단가가 높은 프로그램은 현장 실습기간 동안 인건비가 지급된 프로그램이다. 여성 수혜율이 높은 프로그램 중에서 1인당 단가가 높은 사례는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사업(부산)’, ‘원어민 강사 양성사업

(대전)', '근대문화 전문인력양성사업(전북 군산)', '디지털 미디어 제작자(충북)' 등이 있다. 또한 1인당 단가는 높지만 여성 참여율이 낮은 프로그램으로 '형성한우 명인 만들기 사업(강원)', '조선 생산설계 전문가 양성사업(울산)', '자동차-조선부품분야 전문인력양성과정(울산)' 등이 있다.

〈표 Ⅲ-7〉 13개 시도 인재육성 프로그램별 예산규모 및 여성 수혜율

단위: 천원

지역	시도 공모사업명	인재양성 프로그램명	전체 예산	1인당 예산	여성 수혜율
강원	맞춤형 골프경기진행요원 양성사업	골프경기진행요원양성사업	130,000	1,625	35.0
	형성한우 명인 만들기 사업	식육처리 기능전문인력양성 식육가공 기능전문 인력양성 한우공예품 기술개발 인력양성	250,000	4,167	20.0
경남	그린스포츠 운영전문가 關志(2G) 양성사업	Green Keeper 과정 Green Memtor 과정	105,000	2,100	52.0
	로봇랜드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로봇응용 및 자동화 과정 대학생로봇 창의공학 설계 고등학생 로봇제작교실 초중등로봇캠프 로봇교사양성과정	210,000	1,105	5.8
	항공우주산업 인재육성 클러스터	항공분야 설계전문 인력 양성 사업	80,000	440	5.5
		항공전자시스템 실무기술 인력 양성사업-1	50,000	1,042	4.2
		항공전자시스템 실무기술인력 양 성사업-2	30,005	1,072	3.6
		항공산업직무기술 능력 JUPM- UP 교육과정 및 구직자 실무 적응 교육	100,013	321	1.6
		항공우주 미래 기술인력 육성 사업	50,004	323	1.3
		항공기 부품 가공기술자 인력 양 성 사업	70,002	1,750	0.0
	선박검사 기술자 양성 사업	선박검사기술자양성과정1기 선박검사기술자양성과정2기	98,000	1,922	2.0
경북	초고령사회 GB60+ 인재 양성사업	전통종가음식 창업컨설팅 사업	40,000	833	97.9
		세대통합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40,000	755	81.1
		노인건강체육지도자양성사업	54,000	1,200	75.6

42 ●●●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지역	시·도 공모사업명	인재양성 프로그램명	전체 예산	1인당 예산	여성 수혜율
	신라, 유교문화권 컬처텔러 양성사업	경북종가문화컬처텔러역량강화사업	30,000	625	83.3
		삼국유사컬처텔러역량강화사업	30,000	500	63.3
		신라문화 컬처텔러역량강화사업	29,040	334	58.6
		영남옛길컬처텔러역량강화사업	30,000	857	51.4
	경상북도 백두대간 그린투어 숲문화해설사 양성사업	숲문화해설사 양성사업	59,000	1,967	73.3
		백두대간 숲 치유사 양성사업	21,000	700	50.0
		백두대간트레킹가이드양성사업	32,000	800	37.5
	레포츠산업 인재양성사업	골프경기보조원양성사업	40,000	667	83.3
		승마산업특화인재양성사업	64,000	2,286	28.6
		승용마 관리인력 양성사업	40,000	1,429	17.9
광주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형 창업취업 프로젝트	울엄마영어교실	9,468	316	100.0
		창업A 아시아 민속공예	13,100	819	100.0
		창업B 아시아 푸드코트	13,095	873	100.0
		아시아 비즈니스 웨르파	22,480	1,249	61.1
		아시아를 그대품안에	13,394	670	50.0
		전문 경영인 문화산업 아카데미	13,037	521	40.0
		문화적NGO 파트너십 아카데미	53,824	1,794	33.3
	제병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제병 창업스쿨 과정	15,111	378	90.0
		제병기능사 과정	149,788	1,218	81.3
	남도 식문화 1인기업가 창업리더 육성사업	반찬가게창업	65,385	817	96.3
		쇼핑몰 머천다이저	29,100	383	88.2
		식 기업가 창업 리더	41,215	824	80.0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 아동교육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비전프로바이더 양성교육 찾아가는 대학생 공부 도우미 프로그램 예체능 특기적성 프로그램 YG 과학교육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멘토링 프로그램	84,000	449	60.4
	대구광역시 IT융복합 의료기기 인력양성사업	의료기기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기본과정 의료기기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심화과정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문가 과정 의료기기산업현장인력양성 교육과정 의료기기 산업체 인력대상첨단	225,499	485	33.8

지역	시·도 공모사업명	인재양성 프로그램명	전체 예산	1인당 예산	여성 수혜율
	대구경북 IT융합 지능로봇 현장전문 인력양성사업	의료기기 기술교육 IT/MT 관련대상 의료기기 분야			
		현장 맞춤형 설계 및 제작실습 사업	38,348	752	0.0
		로봇 시스템 설계기술 인력양성 사업	38,258	683	0.0
		로봇 서보제어분야 현장기술 인력양성 사업	37,894	592	0.0
		로봇 산업기반 조성 및 네트워킹 사업	19,500	76	0.0
대전	결혼이주여성 원어민강사 양성사업	원어민 강사 양성사업	65,910	1,997	100.0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 인적자원개발 육성사업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교육 공통과정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문과정	280,000	1,049	24.7
부산	부산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 벨트사업	BNBS운동 확산을 위한 도서관 전문인력양성	94,500	2,779	100.0
		고학력 경력단절 방과후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175,900	1,066	100.0
		기초학습부진아등을 위한 대학생, 고학력전문인력여성 멘토링 1:1교사제	89,600	395	55.1
	동남권 지역특화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영상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1차) HD영상디자인(2차) 제품디자인 전문이력 양성사업 출판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1차) 출판디자인프로젝트 실습(2차)	192,108	1,549	52.4
	해양수산 IT융합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BIO-IT 트랙	74,667	1,965	78.9
		물류, 무역, 정보 트랙	75,547	2,361	43.8
		GIS 및 재난관리 트랙	62,152	3,108	35.0
	부산-규슈지역 초광역 IT전문인력양성	IT전문인력양성	100,000	3,333	33.3
울산	울산시민을 위한 전국단위 문화탐방강사 양성 사업	양성사업1차 양성사업2차	112,000	1,131	100.0
	울산시 동구북구 제조업 고령퇴직자의 인생재설계를 위	신규창업 및 재정관리를 위한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40,000	645	33.9

지역	시·도 공모사업명	인재양성 프로그램명	전체 예산	1인당 예산	여성 수혜율
	한 인재양성사업	생애진단 설계프로그램	50,000	417	25.8
		재취업을 위한 고용가능성 강화사업	44,720	758	22.0
	부·울·경 주력산업 맞춤형 학습-고용연계사업	자동차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 과정	50,000	1,923	42.3
		조선설계 전문인력 교육사업	50,000	197	19.7
		조선생산설계전문가 양성사업	55,000	2,200	8.0
		조선해양플랜트 기술인력양성 사업	55,000	1,833	3.3
		자동차-조선부품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110,000	1,964	1.8
전 남	2012여수세계박람회 전문자원봉사자 인력 양성 사업	청소년 자원봉사 강사 양성	21,200	848	88.0
		외국어통역 봉사단 양성	54,600	420	76.9
		관광해설사 양성	24,500	490	66.0
		국제매너 강사 양성	22,700	757	63.3
		박람회 홍보 강사 양성	17,400	580	46.7
		자원봉사기본 교육강사양성	21,200	606	42.9
	해양레저장비산업 인재육성 사업	레저장비제조업체CEO아카데미	31,980	1,599	15.0
		레저장비 선형설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42,000	840	12.0
		레저장비 구조설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26,000	520	12.0
		레저장비 생산기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78,987	1,580	12.0
		레저장비 운용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64,168	535	9.2
	한옥건축인재육성사업-한옥 기술자 신규 및 전문기술 재교육	한옥건축 인재육성사업	280,000	940	7.0
전 북	전북 시, 군 연계(식품산업) 인재육성 F-HRD프로젝트	한식세계화 조리인력양성	115,181	1,477	78.2
		장류현장형 전문인력양성	70,000	972	76.4
		식품소재신기술 전문인력양성	70,000	405	60.7
		식품산업 CEO아카데미	57,000	620	31.5
		식품안전관리 전문인력양성	39,999	292	29.2
		약초재배, 생산 표준화컨설팅교육	60,000	909	15.2
	전북과학연구단지 산, 학, 연 융합 및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석·박사과정 활용기술지도 사업	21,000	3,000	28.6

지역	시·도 공모사업명	인재양성 프로그램명	전체 예산	1인당 예산	여성 수혜율
		on/off 네트워크 체제 구축 사업	103,112	653	15.2
		현장맞춤형 직무능력향상교육	375,888	284	10.4
	탄소경량화 소재/ 부품/제품 설계 및 신뢰성평가 전문가 육성	현장특화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90,000	1,765	11.8
		산업체 기술인력재교육 및 직무향상 교육 프로그램	74,720	1,624	10.9
		특화 전문 교육프로그램	49,250	1,094	2.2
	군산 근대문화 전문인력양성 사업	군산 근대문화 전문인력양성	89,234	1,785	76.0
	제주	3Eco 관광네트워킹 지역인재 육성사업	Eco-beauty therapist 양성교육과정	94,460	407
3Eco 체험멘티-멘토링 아카데미 운영			116,640	540	99.5
Eco-food coordinator 양성교육과정			66,436	515	95.3
Eco-stay manager 양성교육과정			28,900	298	84.5
21세기 제주 블루골드 물자원 산업화를 위한 인재육성 사업		물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물해설자 양성	60,000	203	55.1
		관정관리 전문교육	44,200	417	25.5
		워터글러스터 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124,400	1,082	24.3
제주 Green-up 지역 만들기 인재육성 사업		자영업 마케팅 양성 지역 상품 판매구성 전문 시나리오 작성 인재육성 지역상품 판매전문 스토리텔러 인재육성 지역 상품판매 매니저 육성	114,000	368	54.8
충남		No-RHRD를 통한 아산시 창의적 지역인재육성 개발 사업	관광인력사무 자동화 교육	15,000	750
	관광음식업 인력양성교육		54,000	1,080	90.0
	관광인테리어(도배)		16,500	825	30.0
	인재육성을 통한 서해안 희망찾기 프로젝트	신규산업적응형인재육성사업	60,089	300	3.5
		현안해결형인재육성사업	57,509	293	85.7
		차세대인재육성사업	62,700	265	37.6
	충청권 신경제 성장동력으로 서 국방산업 인재육성 및 교육, 고용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국방전자, 정보통신산업 인재육성 및 국방산업포럼 운영	71,400	643	6.3
		국방R&D산업	30,000	536	0.0
항공우주산업 인재양성 및 활용사업		60,000	283	0.0	

지역	시·도 공모사업명	인재양성 프로그램명	전체 예산	1인당 예산	여성 수혜율
충북	2009 충북 여성인재 육성사업	디지털미디어 제작자	35,900	1,710	100.0
		노무관리 사무원	36,100	1,203	100.0
		협력사례 관리자	35,950	1,438	100.0
		지역 사회 조사원	36,200	1,207	100.0
		영아 보육 돌보미	36,200	1,207	100.0
	신성장동력 U-헬스케어 인재 양성 사업	U-헬스케어전문기술 인재양성 과정	37,090	1,236	30.0
		U-헬스케어기초 기술인재양성 과정	9,856	259	21.1
	반도체, 태양광 기반기술 인재육성사업	반도체, 태양광 제조 장비 유지 보수 인재 육성 프로그램	118,288	1,971	23.3
		사이버 반도체, 태양광 체험 프로그램	29,978	341	4.5

주1: 공모사업 예산은 국고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를 합한 것임. 일부 자치단체의 프로그램 예산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적은 예산 포함되어 있으나, 그 액수는 크지 않음. 결과보고서에 지출예산이 분리되지 않았음.

주2: 수혜액은 프로그램별 1인당 단가에 참여인원을 곱한 값의 합임.

자료: 각 자치단체의 사업결과보고서 참조.

IV

사업성과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 | |
|-------------------------|----|
| 1. 담당 공무원 조사를 통한 성과분석 | 49 |
| 2. 프로그램 참여자 조사를 통한 성과분석 | 54 |

1. 담당 공무원 조사를 통한 성과분석

이 연구는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정책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동 사업의 기대효과로 1) 지역 주민의 취업기회 확대 및 취업자의 직업역량 제고, 2) 평생교육수요 충족을 통한 지역 주민의 자기발전과 삶의 질 제고, 3) 담당 공무원의 HRD 역량 제고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기대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 공무원 조사는 위의 세 가지 기대효과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과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공무원의 관점에서 조사된 지역인재육성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 수는 총 29명이며 자치단체별로 1-4명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2009년에 지역인재육성사업을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며, 인사교체로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관련자 모두를 조사하였다. 29명 중에서 남성이 22명(75.9%)이고 여성이 7명(24.1%)이다. 공무원들이 지역인재육성사업을 담당했던 기간은 1-2년인 경우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인 9명, 2년 이상이 7명이었다.

〈표 IV-1〉 질문지 조사대상 공무원

구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사례수	2	1	3	2	1	2	3	2	4	4	2	1	2	29
%	6.9	3.4	10.3	6.9	3.4	6.9	10.3	6.9	13.8	13.8	6.9	3.4	6.9	100.0

〈표 IV-2〉 지역인재육성사업을 담당했던 기간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합계
사례수	2	7	13	4	3	29
%	6.9	24.1	44.8	13.8	10.3	100.0

나. 정책효과에 대한 의견

지역인재육성사업의 효과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다. 네 가지 정책효과에 대해 5점 척도로 의견을 수집하였는데, 취업 혹은 창업기회 확대 효과가 가장 낮다고 응답하였다. 즉, 이 기대효과가 ‘매우 우수하다’ 혹은 ‘우수하다’는 의견이 48.3%, ‘보통’이라는 의견이 41.4%, ‘저조하다’는 의견이 10.3%이다. 이에 비해 참여자의 직업능력 제고, 삶의 질 제고, 담당 공무원의 HRD 역량 제고에 대해서는 거의 80% 이상이 효과가 우수하다고 응답했다.

〈표 IV-3〉 정책효과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

단위: %

정책효과	매우 저조하다	저조하다	보통이다	우수하다	매우 우수하다	합계
참여자의 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	0.0	10.3	41.4	41.4	6.9	100.0
참여자의 직업능력 제고	0.0	0.0	20.7	65.5	13.8	100.0
참여자의 삶의 질 제고	0.0	0.0	17.2	72.4	10.3	100.0
담당 공무원의 HRD 역량 제고	0.0	0.0	17.2	69.0	13.8	100.0

다. 공무원의 여성 HRD 역량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성인지적으로 기획·추진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여성 HRD 역량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공무원의 여성 HRD 역량을 살펴 보기 위해 공모사업의 선정기준, 성인지 예산 제도 인식 정도, 여성의 정책 수요 반영 정도, 여성 참여자의 사업효과, 여성인재육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여성 참여자 비율은 사업내용의 성격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의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의했는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략산업에 부응하는 정도(75.9%)가 가장 많이 채택되었으며, 다음으로 미취업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 가능성(58.6%), 지역 내 기존 사업체의 인력 수요(55.2%)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주민들의 평생교육 수요 충족을 기준에 포함시켰다는 응답은 1명(3.4%)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공모사업의 선정을 시도에서 하는데, 시도 공무원의 경우 자치단체의 전략산업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전략산업이 여성인력의 수요가 큰 경우 여성 참여율이 높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시도의 경우에는 여성 참여율이 매우 낮은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표 Ⅳ-4〉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선정기준(중복선택)

구분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략산업에 부응하는 정도	지역 내 기존 사업체의 인력수요	미취업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 가능성	주민들의 평생교육수요 충족
사례수	22	16	17	1
%	75.9	55.2	58.6	3.4

주: 전체 응답자 수는 29명임.

지역인재육성사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29명의 공무원 중 11명(37.9%)은 성인지 예산 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18명(62.1%)가 들어본 적이 있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5〉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인식

구분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합계
사례수	11	6	12	29
%	37.9	20.7	41.4	100.0

공무원의 90% 정도는 지역 여성의 취업욕구나 교육훈련 수요를 사업에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표 IV-6〉 지역 여성의 취업 욕구나 교육훈련 수요 반영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0	3	13	13	29
%	0.0	10.3	44.8	44.8	100.0

공무원의 48.3%는 인재양성 프로그램 수료생의 취업기회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본다. 남성이나 여성 어느 한 쪽의 기회가 더 많다고 보는 공무원의 경우, 여성의 기회가 더 많다는 의견(37.9%)이 남성의 기회가 더 많다는 의견(13.8%)보다 많다. 인재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조사에서, 프로그램 참여 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미취업자에서 취업자로 이동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담당 공무원들이 성별에 따른 사업효과의 차이에 대해 상당히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7〉 성별에 따른 수료생의 취업기회 차이

구분	남성의 기회가 더 많다	여성의 기회가 더 많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	합계
사례수	4	11	14	29
%	13.8	37.9	48.3	100.0

성별에 따른 직업역량 제고 효과에 관해서도 성별에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55.2%, 여성의 효과가 더 높다는 의견이 31.0%, 남성의 효과가 더 높다는 의견은 13.8%이다. <표 IV-7>과 <표 IV-8>의 조사결과는 여성의 참여율 제고가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사업성과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8〉 성별에 따른 직업역량제고 효과 차이

구분	남성의 교육효과가 더 높다	여성의 교육효과가 더 높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	합계
사례수	4	9	16	29
%	13.8	31.0	55.2	100.0

89.7%의 공무원은 여성을 위해 특성화된 인재육성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이유는 여성의 취업기회가 적고, 남성보다 교육수요가 높기 때문이라고 본다.

〈표 IV-9〉 여성을 위해 특성화된 인재육성사업 수행의 필요성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례수	1	2	16	10	29
%	3.4	6.9	55.2	34.5	100.0

〈표 IV-10〉 여성 인재육성사업 수행이 필요한 이유

구분	남성은 육훈련기회가 많으나 여성은 기회가 적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취업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의 교육수요가 높기 때문에	지역 산업특성상 여성인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합계
사례수	2	13	9	2	26
%	7.7	50.0	34.6	7.7	100.0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를 장려해야 할 집단으로는 성인 미취업자 및 경력단절자라는 의견이 55.2%이고, 다음으로 청년층 미취업자(37.9%)라는 의견이 많다. 고교 및 대학 재학생, 재직자 및 자영업자를 우선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공무원은 매우 적다.

〈표 IV-11〉 인재육성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를 장려할 집단

구분	고교 및 대학 재학생	청년층 미취업자	재직자 및 자영업자	성인 미취업자 및 경력단절자	합계
사례수	1	11	1	16	29
%	3.4	37.9	3.4	55.2	100.0

2. 프로그램 참여자 조사를 통한 성과분석

가.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는 2009년도에 지역인재육성사업(공모사업)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이며, 남녀를 동수로 조사하되, 프로그램의 여성 참여율에 따라 표본 수를 정하였다. 총 목표 표본 수는 500명이었으나 실제 조사된 표본 수는 513명이다. 참여자의 70% 이상이 여성인 프로그램에서 남성 표본을 구하는 것과, 여성이 30% 이하인 프로그램에서 여성 표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목표 표본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했다. 여성 참여 비율에 따라 쿼터를 정하여 표본을 추출한 이유는,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 간에 사업효과의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표 IV-12〉 프로그램 참여자 조사를 위한 조사대상자

프로그램의 여성 참여율	목표 표본 수						회수 표본 수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여성 70% 이상	36	14.4	142	56.8	178	35.6	37	14.2	143	56.7	180	35.1
여성 31-70%미만	70	28.0	59	23.6	129	25.8	77	29.5	60	23.8	137	26.7
여성 30% 이하	144	57.6	49	19.6	193	38.6	147	56.3	49	19.4	196	38.2
합계	250	100.0	250	100.0	500	100.0	261	100.0	252	100.0	513	100.0

표본 추출은 세 단계로 과정을 거쳤다. 먼저 <표 III-7>에 제시한 120여개 프로그램을 여성 참여율 0.0%에서 100.0%까지 순서대로 정렬한 후 일정한 간격으로 44개를 무선표집하였다. 다만, 참여자의 대부분이 초·중등학교나 대학 재학생인 프로그램은 여성 참여율이 가장 유사한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였다. 시도 사업단에 협조를 요청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의 이수자 명단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8개 프로그램의 이수자 명단을 수집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프로그램 수는 36개이다. 다음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을 여성이 70% 이상인 프로그램, 여성이 31-70% 미만인 프로그램, 여성이 30% 이하인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전체 프로그램 이수자(모집단)의 비율과 같은 비율로 <표 IV-12>의 목표 표본 수를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36개 단위 프로그램별로 남녀 표본 수를 할당하고, 할당된 수만큼 이수자 명단에서 무선표집 하였다. 이때 각 프로그램의 이수자 수를 기준으로 표본 수를 할당하면, 이수자가 소수인 프로그램의 표본 수가 너무 적어지고 결과적으로 참여자 수가 매우 큰 4-5개 프로그램의 조사결과가 전체 조사결과를 좌우하는 문제가 있으므로⁵⁾, 한 프로그램에서 최소 5명 최대 50명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에 성공한 프로그램별 표본 수는 <부록표 1>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은 다음 <표 IV-13>과 같다. 연령별 분포는 남성이 20대(26.4%)와 30대(23.8%)에 가장 많이 분포된 반면, 여성은 좀 더

5) 인제양성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는 여건에 따라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다.

연령대가 높아 40대(37.7%)와 50대(21.4%)가 가장 많다. 학력별로는 남녀 모두 4년제 대졸자가 가장 많고, 남성의 학력이 좀 더 높았다. 남성은 4년제 대졸자와 대학원 졸업 이상이 58.6%를 차지한 반면, 여성은 46.0%에 불과하였다. 반면, 고졸이하 학력소지자는 남성이 24.1%인데 여성은 35.7%였다. 결과적으로 남성의 학력수준이 여성보다 좀 더 높아, 전체 인구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모사업 분야별 분포는 기초자치단체사업 참여자가 29.8%, 광역자치단체사업 참여자가 46.6%, 계속사업 참여자가 23.6%이다. <표 III-2>의 모집단과 비교하면 여성의 경우에는 모집단의 비율과 유사하게 표집되었으나, 남성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사업 참여자가 과대표집되었고 계속사업 참여자가 과소표집되었다.

〈표 IV-13〉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명	%	명	%	명	%
연령	20대	69	26.4	49	19.4	118	23.0
	30대	62	23.8	46	18.3	108	21.1
	40대	57	21.8	95	37.7	152	29.6
	50대	43	16.5	54	21.4	97	18.9
	60대 이상	30	11.5	8	3.2	38	7.4
학력	고졸 이하	63	24.1	90	35.7	153	29.8
	전문대졸	45	17.2	46	18.3	91	17.7
	4년제 대졸	119	45.6	93	36.9	212	41.3
	대학원 졸 이상	34	13.0	23	9.1	57	11.1
공모사업 분야	기초자치단체 사업	66	25.3	87	34.5	153	29.8
	광역자치단체 사업	147	56.3	92	36.5	239	46.6
	계속사업(전년도 우수사업)	48	18.4	73	29.0	121	23.6
합계		261	100.0	252	100.0	513	100.0

나.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현재의 경제활동상태는 프로그램 등록 당시와 상당히 다르다. 수강등록 당시 취업자는 45.6%인 234명,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미취업자는 28.8%인 148명, 실업자는 16.4%인 84명, 그리고 나머지 9.2%인 47명은 대학생이었다. 조사시점은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종료된 지 최소 7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취업자가 45.6%에서 70.8%로 상당히 증가하였고, 실업자나 미취업자는 54.4%에서 29.3%로 상당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남성보다 여성의 취업자 비율이 더 크게 증가하였는데, 여성은 34.9%에서 63.9%로 29.0% 포인트 증가하였고, 남성은 55.9%에서 77.4%로 21.5%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활동상태의 변화가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직접적인 결과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남성은 55.9%가 취업자였으며, 미취업자(대학생 제외)는 15.7%, 실업자는 18.0%여서, 상당수가 직무 관련 혹은 취업을 목적으로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참여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수강 당시 42.5%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미취업자(대학생 제외)로서 남성 수강생들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취업자도 34.9%에 달해 여성의 1/3정도는 일을 하면서 교육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당시 대학생인 경우는 남녀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데, 남성은 10.3%, 여성은 7.9%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참여자 분포는 이 연구에서 조사된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취업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이었음을 의미한다.

〈표 Ⅳ-14〉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명, %

경제활동 상태	2009년 프로그램 등록시			2010년 7월 현재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취업자	55.9	34.9	45.6	77.4	63.9	70.8
실업자	18.0	14.7	16.4	17.6	6.7	12.3
비경제활동인구(대학생 제외)	15.7	42.5	28.8	5.0	29.4	17.0
대학생(휴학생 포함)	10.3	7.9	9.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261	252	513	261	252	513

공모사업 분야별로 프로그램 참여 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년도에 우수사업인 계속사업에서 취업자 비율의 증가가 가장 크고, 남성보다 여성의 취업자 비율 증가가 더 크다. 기초자치단체사업은 광역자치단체사업에 비해 미취업자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는데, 특히 기초자치단체사업의 남성 미취업자이 경제활동상태 변화가 가장 적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속사업 참여자의 취업자 비율은 등록 당시 41.3%였는데 현재에는 81.8%로 증가했고, 미취업자 비율은 58.7%에서 18.2%로 감소했다. 여성의 경우에는 취업자 비율이 34.2%에서 78.1%로 증가하여 남성에 비해 증가율이 더 높다.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 사업의 취업자 비율은 등록 당시 51.9%에서 현재 75.3%로 증가했다. 취업자 비율 증가폭은 남녀 모두 25% 포인트 전후로 거의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기초 자치단체 사업의 취업자 비율은 39.2%에서 54.9%로 15% 포인트 정도 증가하였다. 남성은 59.1%에서 68.2%로 9.1% 포인트 밖에 증가하지 못했으나, 여성은 24.1%에서 44.8%로 20.7%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공무원 대상의 조사에서, 프로그램 이수자의 취업기회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거나 여성의 기회가 더 많다는 의견과 일치한다.

〈표 IV-15〉 공모사업분야별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명, %

공모사업 분야	경제활동 상태	2009년 프로그램 등록시			2010년 7월 현재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기초자치단체사업	취업자	59.1	24.1	39.2	68.2	44.8	54.9
	미취업자	40.9	75.9	60.8	31.8	55.2	45.1
광역자치단체사업	취업자	55.8	45.7	51.9	78.2	70.7	75.3
	미취업자	44.2	54.3	48.1	21.8	29.3	24.7
계속사업 (전년도 우수사업)	취업자	52.1	34.2	41.3	87.5	78.1	81.8
	미취업자	47.9	65.8	58.7	12.5	21.9	18.2
전체사업	취업자	55.9	34.9	45.6	77.4	63.9	70.8
	미취업자	44.1	65.1	54.4	22.6	36.1	29.2

주: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대학생 포함)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자영업이 줄고, 임금근로자가 늘어났는데, 남성은 상용직의 비율이, 여성은 임시직과 일용직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는 차이가 있다. 현재 취업자 363명 취업자 중 상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절반 정도인 54.5%이며, 자영업은 25.1%, 그 다음이 임시직 13.2%, 일용직은 5.0%에 불과하다. 이러한 고용상 지위는 남녀간 차이가 커서 남성의 상용직 비율이 여성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등록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남성은 상용직이 59.6%에서 63.9%로 증가한 반면, 임시직, 일용직 비율은 9.6%에서 7.5%로 감소했다. 자영업의 비율도 30.8%에서 28.2%로 약간 감소했다. 이에 비해 여성은 상용직이 45.5%에서 42.9%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자영업의 비율도 30.7%에서 21.1%로 감소했다. 그 대신 임시직이 13.6%에서 24.2%로 크게 늘었고, 일용직도 5.7%에서 7.5%로 증가하였다.

〈표 IV-16〉 취업자의 고용상 지위 변화

단위: 명, %

경제활동 상태		2009년 프로그램 등록시			2010년 7월 현재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임금 근로자	상용직	59.6	45.5	54.3	63.9	42.9	54.5
	임시직	6.2	13.6	9.0	4.5	24.2	13.2
	일용직	3.4	5.7	4.3	3.0	7.5	5.0
자영업(창업)		30.8	30.7	30.8	28.2	21.1	25.1
무급가족종사자		0.0	4.5	1.7	0.5	4.3	2.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46	88	234	202	161	363

다. 취업자의 일자리 관련 효과

지역인재 육성사업 프로그램 중에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도 있고, 또한 일을 하면서 교육을 듣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당시 취업자였던 사람들은 교육이수 이후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IV-17>을 보면, 수강당시 취업자였던 234명중 대부분인 71.8%가 ‘직

장에서 업무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고, 9.3%는 '직장에서 맡은 일이 교육받은 분야로 바뀌었다'거나 '승진 혹은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참여자의 80%이상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도 18.8%에 달하였는데, 이는 향후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취업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 효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에서 업무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여성은 68.2%로 남성(74.0%)보다 적고, '별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도 전체의 1/5 수준인 21.6%로 남성(17.1%) 보다 높다. 결국, 취업자 중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참여한 경우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되어 긍정적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은 남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17〉 취업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참여 효과

참여효과	남자		여자		전체	
	명	%	명	%	명	%
직장에서 업무능력이 향상되었다	108	74.0	60	68.2	168	71.8
직장에서 맡은 일이 교육받은 분야로 바뀌었다	4	2.7	1	1.1	5	2.1
승진 혹은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5	3.4	4	4.5	9	3.8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	2.7	4	4.5	8	3.4
효과 없었다	25	17.1	19	21.6	44	18.8
합계	146	100.0	88	100.0	234	100.0

이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 자료는 취업자의 일자리 관련 효과가 여성에게 더 낮게 나타나는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 다만 취업자가 프로그램 참여 시 겪었던 애로사항을 살펴본 결과 <표 IV-18>과 같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사와 자녀를 돌보는 일로 교육시간을 맞추기 힘들었다'는 응답은 많지도 않고, 남성보다 그 비율이 적었다(남성 13.5%, 여성 12.7%).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애로사항은 '직장 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는 것인데(남성 57.3%, 여성 49.1%), 이것도 남성보다 그 비율이 적다. 여성들이 더 빈번하게 호소한 애로사항은 '프로그램 내용이 따라가기 어려웠다'(남성 12.4%, 여성

16.4%)’거나 ‘교육장소까지 거리가 멀었다(남성 16.9%, 여성 29.1%)’는 것이다. 그 밖에 취업자의 일자리 관련 효과가 성별로 차이가 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표 Ⅳ-18〉 취업자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시 애로사항(복수응답)

애로사항	남자		여자		전체	
	명	%	명	%	명	%
가사와 자녀돌보는 일로 교육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었다	12	13.5	7	12.7	19	13.2
직장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51	57.3	27	49.1	78	54.2
프로그램 내용이 따라가기 어려웠다	11	12.4	9	16.4	20	13.9
교육장소가 거리가 멀었다	15	16.9	16	29.1	31	21.5
수강 전 기대했던 내용과 실제 내용 간에 차이가 있었다	15	16.9	4	7.3	19	13.2
교육생들 중 동성 교육생들이 적어 힘들었다	0	0.0	4	7.3	4	2.8
환경이 열악했다	4	4.5	0	0.0	4	2.8
교육기간이 길었다	1	1.1	0	0.0	1	0.7
합 계	89	122.5	55	121.8	144	122.2

라. 미취업자의 취업 효과

미취업자(실업자 포함)에게 일자리를 얻게 해주려는 정책목적은 절반 정도 성공하였다. 프로그램 등록 당시 미취업자였던 사람은 279명이었는데, 그 중 절반이 좀 넘는 58.4%가 프로그램 이수 후에 취업 또는 창업한 경험이 있고, 41.6%는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남성은 65.2%가 취업경험이 있는데 비해, 여성은 53.7%만이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어, 남녀 간에 11.5% 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다.

〈표 IV-19〉 미취업자의 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경험 여부

취업경험	남자		여자		전체	
	명	%	명	%	명	%
있다	75	65.2	88	53.7	163	58.4
없다	40	34.8	76	46.3	116	41.6
합계	115	100.0	164	100	279	100.0

위의 표에서 미취업자가 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한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에 더 높는데, <표 IV-14>에서 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자 비율이 증가한 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이 프로그램 등록 당시 미취업자가 대부분(65.1%)이었던데 비해, 남성은 취업자(55.9%)가 많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한 사람 163명중 프로그램과 당시 맡은 일과의 관련 정도는 어떠한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5.2%로서 관련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44.8%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응답 역시 남녀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은 61.4%, 여성은 50.0%로 10%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20〉 프로그램과 맡은 일과의 관련 정도

관련경로	남자		여자		전체	
	명	%	명	%	명	%
전혀 관련이 없다	15	20.0	23	26.1	38	23.3
관련이 없는 편이다	14	18.7	21	23.9	35	21.5
관련이 있는 편이다	23	30.7	21	23.9	44	27.0
매우 관련이 있다	23	30.7	23	26.1	46	28.2
합계	75	100.0	88	100.0	163	100.0

프로그램 이수 후 관련된 분야에 취업했다고 응답한 사람 90명 중 절반인 50.0%는 상용직, 27.8%는 임시직, 일용직은 13.3%로 나타났고, 창업한 경우는 6.7%에 머물렀다. 취업한 사람들의 고용형태는 성별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즉, 남성 전체 46명 중에서 상용직은 71.7%이지만 여성은 44명 중에서 27.3%만 상용직이다. 임시직은 남성이 2.2%에 그친 반면, 여성은 54.5%나 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고용상의 지위와 고용형태가 훨씬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21〉 관련된 분야로 취업했을 때 고용상의 지위와 고용형태

고용상 지위와 고용형태		남자		여자		전체	
		명	%	명	%	명	%
임금 근로자	상용직	33	71.7	12	27.3	45	50.0
	임시직	1	2.2	24	54.5	25	27.8
	일용직	6	13.0	6	13.6	12	13.3
자영업(창업)		4	8.7	2	4.5	6	6.7
무급가족종사자		2	4.3	0	0.0	2	2.2
합계		46	100.0	44	100.0	90	100.0

미취업자에 관한 일련의 자료분석 결과,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이들에게 일 자리 기회를 주는 효과, 교육받은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일자리로 진출하게 하는 효과, 나아가 고용상의 지위와 고용형태에 이르기까지, 지역인재육성사업의 효과가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훨씬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이수 후 관련분야에서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근무기간도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여성은 6개월 이하 정도 일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의 반이 넘는 54.6%인 반면, 남성은 1년 이상 일한 사람의 비율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22〉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 취업했을 경우 취업기간

취업기간	남자		여자		전체	
	명	%	명	%	명	%
6개월 미만	7	15.2	24	54.6	31	34.3
6개월~1년 미만	19	41.3	15	34.2	34	37.7
1년 이상	20	43.5	5	11.4	25	27.7
합계	46	100.0	44	100.0	90	100

지역인재육성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지역에서 교육훈련을 받아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한 사람들이 과연 그 지역에서 취업을 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관련 분야에 취업한 90명 중 대부분인 78명(86.7%)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자치단체에서 취업했다고 응답하고 있어, 지역인재육성사업의 본 취지는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V-23〉 프로그램과 관련된 분야에 취업한 경우 취업지역

취업지역	남자		여자		전체	
	명	%	명	%	명	%
내가 참여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시도/광역시	39	84.8	39	88.6	78	86.7
기타 지역(경기,경남,서울,울산)	7	15.2	5	11.4	11	13.3
합계	46	100.0	44	100.0	90	100.0

이제까지는 수강등록 당시 미취업자들 중 사업 종료 이후 취업 또는 창업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에 대한 경험을 질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취업자들 중에서 사업 종료 이후에도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116명에 달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의 구직활동이나 구직의사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IV-24>는 이들 116명이 프로그램 종료 이후 구직활동을 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인 86.2%(100명)를 차지하였고 구직활동을 한 사람은 13.8%(16명)에 그쳤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여성이 88.2%로 남성(82.5%)보다 약간 더 높다.

〈표 IV-24〉 프로그램 종료 후 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	남자		여자		전체	
	명	%	명	%	명	%
했다	7	17.5	9	11.8	16	13.8
안 했다	33	82.5	67	88.2	100	86.2
합계	40	100.0	76	100.0	116	100.0

프로그램 종료 후 취업경험이 없는 여성의 대부분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들의 프로그램 등록 동기가 취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러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미취업자들의 프로그램 등록 동기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교육받은 직후 혹은 장기적으로 취업 혹은 창업을 위해 등록한 사람이 41.8%이나 여성은 37.8%로 차이가 있다. 남성과 여성 미취업자 모두 절반 이상이 취업보다는 자기발전이나 여가를 보람 있게 활용하기 위해 등록했다는 점은, 향후 지역인재육성사업 참여자를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Ⅳ-25〉 미취업자 및 실업자의 프로그램 등록 동기

프로그램 등록 동기	남자		여자		전체	
	명	%	명	%	명	%
교육받은 후 바로 취업 혹은 창업하기 위하여	24	20.9	25	15.2	49	17.6
장기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24	20.9	37	22.6	61	21.9
자기발전을 위하여	58	50.4	91	55.5	149	53.4
여가를 보람 있게 활용하려고	9	7.8	11	6.7	20	7.2
합 계	115	100.0	164	100.0	279	100.0

마. 평생교육 수요 충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효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의한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정책목적을 살펴보면, 취업기회를 확대하거나 취업자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 이외에, 평생교육 수요 충족을 통한 지역 주민의 자기발전과 삶의 질 제고가 있다. 여기에서 ‘삶의 질’이란 교육훈련의 경제적 효과 이외에 자기발전이나 인간적 성숙과 같은 비경제적 측면의 효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이러한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 전에 먼저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등록 동기를 통해 교육훈련 수요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에 관해서는 남녀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기발전을 위하여’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들이 6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7.3%가 ‘장기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참여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11.3%만이 ‘교육받은 후 바로 취·창업을 하기 위하

여’라고 응답하였다. ‘여가를 보람있게 활용하려고’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은 7.4%로 소수에 그쳤다.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 동기는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정책목표 중에서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부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V-26〉 전체 참여자의 성별 프로그램에 등록 동기

프로그램 등록 동기	남자		여자		전체	
	명	%	명	%	명	%
교육받은 후 바로 취업 혹은 창업하기 위하여	28	10.7	30	11.9	58	11.3
장기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42	16.1	47	18.7	89	17.3
자기발전을 위하여	172	65.9	156	61.9	328	63.9
여가를 보람 있게 활용하려고	19	7.3	19	7.5	38	7.4
합계	261	100.0	252	100.0	513	100.0

프로그램에 참여 동기는 프로그램의 여성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성이 70% 이상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받은 후 바로’ 혹은 ‘장기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이 39.4%인데 비해, 여성 비율이 31-70% 미만인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은 취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이 20.4%에 불과했다. 여성 비율이 30% 이하인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들은 24.5%가 취업을 목적으로 등록하였다.

〈표 IV-27〉 여성 참여 비율에 따른 프로그램 유형별 프로그램 등록 동기

프로그램 등록 동기	여성이 70% 이상인 프로그램		여성비율 31-70% 미만 프로그램		여성비율 30% 이하 프로그램		전체	
	명	%	명	%	명	%	명	%
교육받은 후 바로 취업 혹은 창업하기 위하여	33	18.3	10	7.3	15	7.7	58	11.3
장기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38	21.1	18	13.1	33	16.8	89	17.3
자기발전을 위하여	95	52.8	91	66.4	142	72.4	328	63.9
여가를 보람 있게 활용하려고	14	7.8	18	13.1	6	3.1	38	7.4
합계	180	100.0	137	100.0	196	100.0	513	100.0

프로그램에 참여 동기는 공모사업 분야별로도 차이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22.2%, 광역자치단체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29.7%, 계속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34.7%가 취업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여성의 경우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의 비율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사업 간에 서로 유사하고, 계속사업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다. <표 IV-27>과 <표 IV-28>의 조사결과는 프로그램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과 공모사업 분야에 따라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28> 공모사업분야별 프로그램 등록 동기

공모사업분야	프로그램 등록 동기	남자		여자		전체	
		명	%	명	%	명	%
기초자치단체사업	장단기적 취업/창업	9	13.6	25	28.7	34	22.2
	자기발전/여가	57	86.4	62	71.3	119	77.8
광역자치단체사업	장단기적 취업/창업	45	30.6	26	28.3	71	29.7
	자기발전/여가	102	69.4	66	71.7	168	70.3
계속사업 (전년도 우수사업)	장단기적 취업/창업	16	33.3	26	35.6	42	34.7
	자기발전/여가	32	66.7	47	64.4	79	65.3
전체사업	장단기적 취업/창업	70	26.8	77	44.0	147	40.2
	자기발전/여가	191	69.4	175	69.4	366	71.3

지역인재육성사업이 평생교육 수요 충족을 통한 지역 주민의 자기발전과 삶의 질 제고라는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관련 분야의 직업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 정도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 정도를 조사해 보았다. 직업능력의 향상은 즉시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되지 않아도 미래에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고, 또한 주민의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사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즉,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86.7%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13.3%에 불과하다. 조사결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표 IV-29〉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관련 분야의 직업능력 향상에 도움 정도

도움정도	남자		여자		전체	
	명	%	명	%	명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1.5	11	4.4	15	2.9
도움이 되지 않는다	23	8.8	30	11.9	53	10.3
도움이 된다	138	52.9	133	52.8	271	52.8
매우 도움이 된다	96	36.8	78	31.0	174	33.9
합계	261	100.0	252	100.0	513	100.0

다음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 정도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8.5%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문항 역시 남녀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0〉 프로그램 성과-삶의 질 향상에 도움 정도

도움정도	남자		여자		전체	
	명	%	명	%	명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7	2.7	3	1.2	10	1.9
도움이 되지 않았다	27	10.3	22	8.7	49	9.6
도움이 되었다	156	59.8	151	59.9	307	59.8
매우 도움이 되었다	71	27.2	76	30.2	147	28.7
합계	261	100.0	252	100.0	513	100.0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된 항목을 한 가지만 선택하게 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인 56.8%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점을 들었으며,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인 19.2%가 ‘삶의 방향, 혹은 경력개발 방향 정립’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11.7%는 ‘자신감 향상’에, 7%는 ‘취업기회 제공’에, 마지막으로 5.3%는 ‘동기 수강생들과의 교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남녀 간에 차이가 없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표 Ⅳ-31〉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 항목

도움이 된 항목	남자		여자		전체	
	명	%	명	%	명	%
취업기회 제공	15	6.6	17	7.5	32	7.0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131	57.7	127	55.9	258	56.8
삶의 방향/경력개발 방향 제공	43	18.9	44	19.4	87	19.2
동기 수강생들과의 교류	13	5.7	11	4.8	24	5.3
자신감 향상	25	11.0	28	12.3	53	11.7
합계	227	100.0	227	100.0	454	100.0

바. 프로그램 만족도 및 애로사항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불만족했던 사람은 10% 정도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90%는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여 교육훈련 사업의 효과에 대하여는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만족도 결과에서는 남녀 간에 차이는 없었다.

〈표 Ⅳ-32〉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남자		여자		전체	
	명	%	명	%	명	%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4	1.5	3	1.2	7	1.4
별로 만족하지 않았다	20	7.7	24	9.5	44	8.6
대체로 만족했다	139	53.3	129	51.2	268	52.2
매우 만족했다	98	37.5	96	38.1	194	37.8
합계	261	100.0	252	100.0	513	100.0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하여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를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남녀 간에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남성의 경우 가장 큰 첫 번째 애로점으로 ‘직장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를 단연코 가장 많이 지적(42.2%)한 반면, 여성은 ‘교육장소가 거리가 멀었다’에 가장 많은 35.2%가 응답하였다. 그

밖에 여성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가사와 자녀일로 교육시간을 맞추기 어려웠다(26.4%)’, ‘수강 전 기대했던 내용과 실제 내용 간에 차이가 있었다(23.3%)’, ‘직장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21.4%)’이다. 이에 비해 남성은 ‘직장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다음으로 ‘교육장소가 멀었다(23.8%)’, ‘수강 전 기대했던 내용과 실제 내용 간에 차이가 있었다(21.8%)’고 응답하였다. 남성은 재직자로 인한 어려움, 여성은 교육장소의 거리문제와 자녀양육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낀 것으로 보인다. 수강생들이 원래 기대했던 내용과 실제 내용 간에 차이를 호소한 점은 향후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진행 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표 IV-33〉 프로그램 참여 시 애로사항 유무 및 요인

애로사항 유무 및 요인		남자		여자		전체	
		명	%	명	%	명	%
유무	있음	147	56.3	159	63.1	306	59.6
	없음	114	43.7	93	36.9	207	40.4
	합계	261	100.0	252	100.0	513	100.0
요인 (중복 응답)	가사와 자녀돌보는 일로 교육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었다	14	9.5	42	26.4	56	18.3
	직장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62	42.2	34	21.4	96	31.4
	프로그램 내용이 따라가기 어려웠다	20	13.6	22	13.8	42	13.7
	교육장소가 거리가 멀었다	35	23.8	56	35.2	91	29.7
	수강 전 기대했던 내용과 실제 내용 간에 차이가 있었다	32	21.8	37	23.3	69	22.5
	교육생들 중 동성 교육생들이 적어 힘들었다	1	0.7	9	5.7	10	3.3
	환경이 열악했다	5	3.4	2	1.3	7	2.3
	교육기간이 길었다	2	1.4	2	1.3	4	1.3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1	0.7	0	0.0	1	0.3
	합계	147	117.0	159	128.3	306	122.9

이상에서 조사한 애로사항 이외에 지역인재육성사업이 남성과 여성의 공평한 참여와 효과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 프로그램 인지 경로, 등록방식, 교육운영 시간대에 관해 조사하였다.

먼저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를 묻는 문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인 37.4%가 ‘유관기관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의 홍보 전단 등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인 29.0%가 ‘주변사람들의 권유에 의하여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공무원, 사업단 사람들의 추천’으로 알게 된 사람이 17.9%로 나타났다. 나머지 ‘회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문, 잡지, 서적 등의 홍보물을 통하여’, ‘교수 및 학교 소개’ 등의 경로는 3.3~6.6%정도에 머물렀다.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는 달리, 사업을 인지하게 된 경로에 있어서는 남녀가 일정부분 차이를 보였다. 특히, ‘회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알게 됨’은 남성이 10.3%로 여성의 2.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성이 재직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IV-34〉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	남자		여자		전체	
	명	%	명	%	명	%
유관기관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의 홍보전단 등을 통하여 알게 됨	92	35.2	100	39.7	192	37.4
공무원, 사업단 사람들의 추천으로 알게 됨	43	16.5	49	19.4	92	17.9
주변사람들의 권유에 의하여 알게 됨	70	26.8	79	31.3	149	29.0
회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알게 됨	27	10.3	7	2.8	34	6.6
신문/잡지/서적 등의 홍보물을 통하여 알게 됨	20	7.7	9	3.6	29	5.7
교수 및 학교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됨	9	3.4	8	3.2	17	3.3
합계	261	100.0	252	100.0	513	100.0

수강등록 방식을 조사한 결과, 2/3정도가 넘는 67.8%의 사람들이 ‘서류신청만으로’ 등록하였으며, 나머지 32.2%는 ‘서류신청 후 면접을 통해서’ 등록하였다. 이러한 수강등록방식에 있어서 남녀 간에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여성의 참여 비율에 따라 구분한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서류신청만으로 등록한 사람이 많은 프로그램은 여성 참여자 비율이 70%이상이거나 30% 이하인 프로그램으로, 각각 68.9%와 76.5%가 서류신청만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여성 참여자 비율이 31~70%미만인 프로그램은

54.0%만 서류신청으로 등록했고 46.0%는 서류신청 후 면접을 통해 등록하였다.

〈표 IV-35〉 프로그램 유형별 수강등록 방식

등록방식	여성 70% 이상		여성 31~70% 미만		여성 30% 미만		전체	
	명	%	명	%	명	%	명	%
서류신청만으로	124	68.9	74	54.0	150	76.5	348	67.8
서류신청후 신청 후 면접을 통해	56	31.1	63	46.0	46	23.5	165	32.2
합계	261	100.0	252	100.0	513	100.0	513	100.0

남녀의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교육운영 시간대가 프로그램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남녀 간에 서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교육시간이 ‘주중 주간반’이었던 사람들은 절반인 50.9%정도이며, ‘주중 야간반’이었던 사람은 28.1%정도였다. ‘주말반’은 14.4%, ‘주중과 주말 혼합반’은 6% 정도에 머물렀다. 여성의 59.9%는 ‘주중 주간반’에 참여했던 반면, 남성은 42.1%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여성은 23.8%만이 ‘주중 야간반’이었으나 남성은 훨씬 많은 32.2%가 ‘주중 야간반’에 참여하였고 주말반 역시 남성은 17.2%, 여성은 11.5%로 남녀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남녀의 차이는 참여자들 중 남성의 취업자 비율이 여성에 비하여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표 IV-36〉 성별에 따라 참여했던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대

운영시간	남자		여자		전체	
	명	%	명	%	명	%
주중 주간반	110	42.1	151	59.9	261	50.9
주중 야간반	84	32.2	60	23.8	144	28.1
주말반	145	17.2	29	11.5	74	14.4
주중과 주말 혼합반	20	7.7	11	4.4	31	6.0
주중 주야 혼합반	2	.8	1	.4	3	.8
합계	261	100.0	252	100.0	513	100.0

여성 참여 비율에 따른 프로그램의 유형별로 교육받은 시간대를 조사한 결과, 위의 성별 참여 시간대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여성들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63.9%가 주중 주간반에 수강했으며, 여성 비율이 30% 이하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36.7%만이 주중 주간반에 수강했고 그 보다 많은 55.6%가 주중 야간반이나 주말반에 수강하였다.

〈표 Ⅳ-37〉 여성 참여 비율에 따른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대

운영시간	여성이 70% 이상인 프로그램		여성비율 30-70% 미만 프로그램		여성비율 30% 이하 프로그램		전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주중 주간반	115	63.9	74	54.0	72	36.7	261	50.9
주중 야간반	34	18.9	31	22.6	79	40.3	144	28.1
주말반	24	13.3	20	14.6	30	15.3	74	14.4
주중과 주말 혼합반	7	3.9	10	7.3	14	7.1	31	6.0
주중 주야 혼합반	0	0.0	2	1.5	1	0.5	3	0.6
전체	180	100.0	137	100.0	196	100.0	513	100.0

V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요약	77
2. 정책제언	79

1.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1)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하게 쓰이고 있는가, 2) 그 결과로 기대했던 정책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3)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산의 수립, 배분, 집행 과정에서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별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예산 투자의 양성평등 정도

2009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총 11,232명이며 그 중 여성 참여자는 38.1%를 차지한다. 수료자를 기준으로 하면 여성 참여율은 38.4%이다. 공모사업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기초자치단체사업에 여성 참여율은 60.1%, 광역자치단체사업에 여성 참여율은 29.9%, 계속사업에 여성 참여율은 34.6%이다. 시·도 공무원의 89.7%가 여성을 위해 특성화된 인재육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성 수료생의 취업기회나 직업역량 제고 효과도 남성과 같거나 더 높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85% 이상인데, 여성 참여율(38.1%)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여성 비율(51.3%)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여성 참여율이 정책대상인구의 여성비율보다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주요 원인으로 1)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여성 참여율이 낮고, 2) 자치단체의 전략산업에 부응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도에서, 해당 전략산업의 여성인력 수요가 적거나 그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적다는 점을 들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직업과 관련된 평생학습 참여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낮다. 통계청의 사회조사(2004)에 따르면 직장연수 경험이 있는 여성은 36.2%인데 비해 남성은 62.3%이고,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여성은 5.9%인데 비해 남성은 13.5%이다.

2009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투자된 예산은 국고 60억원을 포함하여 96억 7,763만원이다. 그 중 공통사업비를 제외하고 각

프로그램에 사용된 예산은 76억 9,357만원인데, 각 프로그램의 1인당 지출 예산을 기준으로, 여성에게 투자된 예산(31억 7,552만원)은 공통사업비를 제외한 전체 예산의 41.3%이다. 이는 여성 참여율 38.1%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1인당 지출예산이 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사업분야별로 여성의 지출예산 수혜율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사업은 58.3%, 광역자치단체사업은 31.4%, 계속사업은 41.6%이다. 평균적으로 볼 때 여성들이 1인당 지출예산이 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여성의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예산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나. 성별에 따른 정책효과의 차이

2009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총 563명에 대한 교육 경험 및 이수 후 효과,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남녀 교육생 모두로부터 프로그램 만족도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원래 목적이었던 지역민의 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 등 취지에 맞게 사업이 실시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의 효과를 수강등록 당시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취업자들의 경우, 직무능력향상이나 맡은 업무, 승진, 이직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업자들 역시 절반 이상은 관련분야로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여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겠다.

단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일자리 관련 효과가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취업자들의 직무능력향상이나 업무개발, 승진, 이직 등 모든 항목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미취업자가 관련 분야로 취업했을 경우에도 고용지속성이나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가 사업내용의 문제인지, 아니면 노동시장의 문제인지는 여기서는 알 수 없으나 여성들에게

는 보다 더 지역 인력 수요에 밀착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남녀가 여전히 생활여건이 다름으로 해서 교육훈련을 받을 때 경험하게 되는 애로사항이 다르며, 특히 미취업자 여성은 “교육받은 분야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았다”는 응답(22%)이 남성에 비하여 높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프로그램 운영 시 보다 맞춤형적인 사전 상담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안내가 요구된다.

2. 정책제언

가. 정책대상의 차별화

□ 미취업자 비중 확대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정책대상은 지역주민 전체이다. 그러나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정부의 다른 정책과 중복기능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에서 미취업자의 비중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의 바람직한 비중을 제안하려면 보다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 등록 당시 취업자 비율은 남자 55.9%, 여자 34.9%, 전체 45.6%이다. 취업자를 위한 교육훈련은 일반적으로 노동부의 재직자 직업훈련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고,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의 부처에서도 관련 분야의 정책에 교육훈련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하기도 한다. 실업자를 포함한 미취업자 훈련도 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는 있으나, 지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 취약계층의 취업 촉진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취업자보다 미취업자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삼고, 이들을 지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으로 양성하여 활용되도록 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소규모 자영업자와 같이 다른 정책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

업자를 위한 프로그램까지 제외시키는데 이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훈련밖에 받지 못한 새로운 신규 인력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보다, 기존의 음식·숙박업의 소규모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들에게 새로운 기술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취업자 대상의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제외시키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 그 비중을 줄이고, 타 부처의 정책으로 수행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정책대상을 취업자 중심에서 미취업자 중심으로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여성 참여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13개 시·도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남성은 30.9%만이 비경제활동인구이고 여성은 54.6%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나. 공모사업분야별 예산배분 조정

□ 기초자치단체사업과 계속사업의 예산비중 확대

2009년도 공모사업의 예산의 비중은 기초자치단체사업 16.2%, 광역자치단체사업 47.7%, 계속사업(전년도 우수사업) 36.1%이다. 참여자 비중은 기초자치단체사업 20.6%, 광역자치단체사업 37.7%, 계속사업(전년도 우수사업) 41.7%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효과라고 할 수 있는 취업자 비율 증가(프로그램 등록 당시와 2010년 7월 현재 비교)를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 프로그램 이수자는 39.2%에서 54.9%로, 광역자치단체 프로그램 이수자는 51.9%에서 75.3%로, 계속사업(전년도 우수사업) 프로그램 이수자는 41.3%에서 81.8%로 증가하였다. 광역자치단체사업은 예산 비중이 가장 높지만 참여자 비중은 계속사업보다 낮고, 프로그램 참가자 중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으며, 취업자 비율의 증가는 계속사업에 미치지 못한다.

〈표 V-1〉 공모사업분야별 지출예산, 참여자 수, 취업자 비율 비교

공모분야	예산 비중	참여자 비중	취업자 비율 변화	
			2009년 프로그램 등록 시점	2010년 7월 조사시점
기초자치단체사업	16.2	20.6	39.2	54.9
광역자치단체사업	47.7	37.7	51.9	75.3
계속사업 (전년도 우수사업)	36.1	41.7	41.3	81.8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밀착된 맞춤형 인재양성보다 지역의 전략산업이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주력하는 편인데, 지역의 전략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은 타 부처의 사업으로부터 막대한 국고를 지원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 지역인재육성사업에서 소규모의 지원을 추가로 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사업의 예산 비중을 줄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사업의 예산 비중을 30%로, 계속사업의 예산 비중을 40%로 각각 확대하고, 광역자치단체사업의 예산 비중을 30%로 줄이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 여성 참여율 제고 : 50%까지

□ 프로그램 유형별 차등적인 여성 참여율 목표 설정

공모사업(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여성 참여율을 현재 38.1%에서 50%까지 제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현재 여성 참여율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0%에서 100%까지 다양하다. 공모사업분야별로도 여성 참여율에 큰 차이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사업의 여성 참여율은 60.1%로 상당히 높은데 비해, 광역자치단체사업의 여성 참여율은 29.9%로 매우 낮은 편이다. 여성 참여율 50%를 모든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공모사업분야별로 차등적인 여성 참여율 가이드를 제공하고, 그것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계획서는 각 사업의 여성 참여율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추진 계획을 의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선정평가의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2009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여성 참여율 가이드를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표 V-2〉 공모사업(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여성 참여율 가이드(안)

공모분야	사업특징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여성 참여율 가이드
기초자치단체사업	현장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30%	최저 50%
광역자치단체사업	지역의 전략산업분야 인재양성	30%	최저 20%
계속사업	전년도 우수사업	40%	최저 40%

남성 지배적인 직업분야의 프로그램은 여성 참여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취업의지가 있고 프로그램 이수에 적합한 여성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여성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홍보와 이를 위한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업단은 참여자 모집을 위한 홍보비를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예산 없이도 여성 참여 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사업단 컨소시엄에 여성 HRD 관련기관 참여

여성 참여율이 높으면서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사업단 컨소시엄에 지역의 여성 HRD 관련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성 HRD 관련기관의 역할은 시도사업계획 수립 자문활동, 신규 프로그램 제안, 프로그램 선정 및 평가위원회 참여, 프로그램 이수자 사후관리 지원 등이 가능할 것이다.

라. 여성 수료자 대상 취업연계 강화

□ 미취업자 대상 프로그램의 수강생 선발기준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프로그램 등록 당시 미취업자인 경우, 프로그램 이수 후 여성의 취업 경험에 더 적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분야에 취업했다는 응답도 여성이 더 적으며, 취업했던 기간도 여성이 더 짧고, 상용직으로 취업했던 비율도 여성이 더 낮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업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에 등록한 비율이 낮으며, 프로그램 이수 후에 구직활동을 덜 하였다. 따라서 수강생 선발 시에 취업의지가 강한 여성들을 선발하도록 수강생 선발기준을 보강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바로 취업하지 못한 여성인력을 지역 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협력하여 취업연계를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언급했던 지역 사업단 컨소시엄 구성 시에 여성 HRD 관련 기관을 참여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사후관리 지원도 논의해 볼 수 있다.

□ 취업자 대상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을 성인지적으로 개발

여성 취업자가 남성 취업자에 비해 프로그램 참여로 업무 능력 향상, 직장에서 맡은 업무, 승진, 이직 등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적었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밝히지 못했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프로그램 내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대상에서 취업자 비중을 줄이되, 취업자 대상의 프로그램의 경우, 그 내용을 성인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 담당 공무원의 여성 HRD 역량 강화

지역인재육성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대체로 여성 HRD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여성이 참여할 경우 정책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 참여율을 제고하거나, 정책효과가 남녀에게 공평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지역 여성의 취업욕구나 교육훈련 수요를 정책에 반영했다고 응답하였으나, 부산, 광주, 제주, 경북, 충북을 제외하면 나머지 8개 시·도의 여성 참여율은 5% 내지 3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인재육성사업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시, 여성 HRD의 필요성 설명, 성인지 예산 제도 안내, 지역별 여성 HRD 인프라 소개 등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정책제언은 지역인재육성사업에 고유한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 우수사례집.
- _____ (2008). 2008년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계획.
- _____ (2009). 2009년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계획.
- _____ (2010). 2010년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 설명회 자료.
- 김안국(2005).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역량 강화. Issue pape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형만(2005). RHRD지원센터 운영 및 발전 방향. 충북 RHRD 워크숍 발표자료.
- 손유미 외(2008). 새로운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인재육성 발전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희수 외(2003).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 운영 성과 분석 및 확대 발전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현영섭 외(2008). 지역인재육성사업 재설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부 록

2009년 지역인재육성사업 담당공무원 질문지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질문지조사를 맡고 있는 조사원입니다. 이 조사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시(도)에서 실시했던 지역인재육성사업을 담당하셨지요, 조사는 약 7-8분쯤 걸리는데 참여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로도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에만 쓰이며 통계법 제1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를 받습니다.

조사기관 : (주)OO데이타네트워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OO동 667-14

담당연구원 : OOO 연구원 (E-mail : OOO@OOO.co.kr)

연락처 : 02-000-0000

A. 개인ID	(지역 :)	B.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자 <input type="checkbox"/> 2) 여자
C. 소속기관명	(사업당시)	D. 소속과명	(사업당시)
E. 직위	(사업당시)	F. 이메일	
G. 이름		H. 전화	

1. 지역인재육성사업 운영 경험

문1. 귀하가 2002년 이후로 지역인재육성사업을 담당했던 기간은 얼마동안 입니까?

- ☐1) 6개월 미만 ☐2) 6개월~1년 미만 ☐3) 1년~2년 미만
☐4) 2년~3년 미만 ☐5) 3년 이상

문2.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만 응답) 귀 자치단체는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 ☐1) 있다 (☞문2-1로) ☐2) 없다

문2-1.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여성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1) 0~10% 미만 ☐2) 10~20% 미만 ☐3) 20~30% 미만
☐4) 30~40% 미만 ☐5) 40% 이상

90 ●●●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문3. 귀 자치단체의 지역인재육성사업 선정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 _____ 2순위 : _____

- 1)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략산업에 부응하는 정도
- 2) 지역 내 기존 사업체의 인력수요
- 3) 미취업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 가능성
- 4) 주민들의 평생교육수요 충족

문4. 귀 자치단체의 2009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효과는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사업효과	매우 저조하다	저조 하다	보통 이다	우수 하다	매우 우수하다
1) 교육 참여자의 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	1	2	3	4	5
2) 교육 참여자의 직업능력 제고	1	2	3	4	5
3) 교육 참여자의 삶의 질 제고	1	2	3	4	5
4) 담당 공무원의 인재육성사업 추진역량 제고	1	2	3	4	5

주) 담당 공무원의 역량은 기획력, 네트워크 구축, 총괄·조정력, 사업평가 및 보고에 필요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2.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여성참여에 관한 의식

문5. 귀하는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성인지 예산 제도란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로, 정부는 2010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일부 사업을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1) 모른다 ☐2) 들어본 적 있다 ☐3)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문6. 귀 자치단체는 2009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지역 여성의 취업욕구나 교육훈련 수요를 반영하고자 했습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문7. 지역인재육성사업 수료생의 취업기회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남성의 기회가 더 많다
☐2) 여성의 기회가 더 많다
☐3)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

문8.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직업역량제고 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남성의 교육효과가 더 높다
- ☐2) 여성의 교육효과가 더 높다
- ☐3)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

문9. 귀 자치단체는 지역의 여성을 위해 특성화된 인재육성사업을 수행할(혹은 계속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문10으로)
- ☐2) 별로 그렇지 않다 (☞문10으로)
- ☐3) 대체로 그렇다 (☞문9-1로)
- ☐4) 매우 그렇다 (☞문9-1로)

문9-1. 여성 인재육성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

- ☐1) 남성은 교육훈련기회가 많으나 여성은 기회가 적기 때문에
- ☐2) 남성보다는 여성이 취업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 ☐3) 남성보다는 여성의 교육수요가 높기 때문에
- ☐4) 지역 산업특성 상 여성인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문10. 귀 자치단체의 인재육성사업에 참여할 정책대상 집단으로, 향후 사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참여를 장려할 집단은 어떤 집단입니까?

- ☐1) 고교 및 대학 재학생
- ☐2) 청년층 미취업자
- ☐3) 재직자 및 자영업자
- ☐4) 성인 미취업자 및 경력단절자

2009년 지역인재육성사업 교육참여자 질문지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9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참여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질문지조사를 맡고 있는 조사원입니다. 이 조사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참여하신 ○○○프로그램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사업입니다. 이 조사는 그 프로그램의 효과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사에 응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로도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에만 쓰이며 통계법 제1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를 받습니다.

조사기관 : (주)OO데이타네트워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OO동 667-14

담당연구원 : ○○○ 연구원 (E-mail : ○○○@○○○.co.kr)

연락처 : 02-○○○-○○○○

A. 개인ID		B.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자 <input type="checkbox"/> 2) 여자
C. 프로그램명		D. 이메일	
E. 이름		F. 전화	

1. 지역인재육성사업 참여 경험

문1. 귀하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가장 큰 동기가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

- ☐1) 교육받은 후 바로 취업 혹은 창업하기 위하여
☐2) 장기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3) 자기발전을 위하여
☐4) 여가를 보람 있게 활용하려고

문2. 귀하가 참여한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

- ☐1) 유관기관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의 홍보전단 등을 통하여 알게 됨
☐2) 공무원, 사업단 사람들의 추천으로 알게 됨
☐3) 주변사람들의 권유에 의하여 알게 됨
☐4) 회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알게 됨
☐5) 기타(직접 기입 : _____)

문3. 귀하의 수강등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1) 서류 신청만으로
☐2) 서류 신청 후 면접을 통해서
☐3) 기타 (직접가입 : _____)

문4. 귀하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의 교육운영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 ☐1) 주중 주간반 ☐2) 주중 야간반
☐3) 주말반 ☐4) 주중과 주말 혼합반

문5. 수강 등록할 당시 귀하의 경제활동상태는 어떠했습니까?

- ☐1) 취업자(자영업자 포함) (☞문7로)
☐2) 실업자(구직활동)
☐3)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미취업자 (대학생 제외)
☐4) 대학생(휴학생 포함)

문6. 귀하는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취업(또는 창업)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그렇다 (☞문6-1로) ☐2) 아니다 (☞문9로)

문6-1. 귀하가 취업처(창업처)에서 맡은 일은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었습니까?

- ☐1) 전혀 관련이 없다(☞문8로) ☐2) 관련이 없는 편이다(☞문8로)
☐3) 관련이 있는 편이다(☞문6-2로) ☐4) 매우 관련이 있다(☞문6-2로)

문6-2. 프로그램과 관련된 분야로 취업 했을 때 귀하의 고용 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서 여러 일자리가 있었다면 첫 번째 일자리에 관해 응답)

- ☐1) 상용직(계약기간 1년 이상)
☐2) 임시직(계약기간 1년 미만)
☐3) 일용직
☐4) 자영업(창업)
☐5) 무급가족종사자(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일함)

문6-3.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이수 후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했던 기간을 모두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관련 분야 일자리 경험이 여러 가지면 합하여 응답)

___년 ___개월

94 ●●●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문6-4. 프로그램과 관련된 분야의 취업은 어느 지역에서 하셨습니까?

- ☐1) 내가 참여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시도/ 광역시
☐2) 기타 시도/ 광역시(지역명:_____)

※문6-4에 응답하신 후에는 문9로 가시기 바랍니다.

문7.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에 등록했을 당시 귀하의 고용 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상용직(계약기간 1년 이상) ☐2) 임시직(계약기간 1년 미만)
☐3) 일용직 ☐4) 자영업(창업)
☐5) 무급가족종사자(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일함)

문8.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이 귀하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1) 직장에서 업무능력이 향상되었다(☞문10으로)
☐2) 직장에서 맡은 일이 교육받은 분야로 바뀌었다(☞문10으로)
☐3) 승진 혹은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문10으로)
☐4)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문8-1로)
☐5) 효과 없었다(☞문10으로)

문8-1. 이직했을 당시 새 직장에서 귀하의 고용 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상용직(계약기간 1년 이상)
☐2) 임시직(계약기간 1년 미만)
☐3) 일용직
☐4) 자영업(창업)
☐5) 무급가족종사자(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일함)

문8-2. 이직했을 당시 프로그램과 관련된 분야의 취업은 어느 지역에서 하셨습니까?

- ☐1) 내가 참여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시도/ 광역시에서만 취업함
☐2) 기타 시도/ 광역시(지역명:_____)에서만 취업함
☐3) 내가 참여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시도/ 광역시에서 취업하였고,
 기타 시도/ 광역시에서도 취업함.

※문8-2에 응답하신 후에는 문10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문9. 귀하는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종료 후에 취업/창업하려고 구직활동을 했습니까?

- ☐1) 그렇다 (☞문9-1로) ☐2) 아니다 (☞문10으로)

문9-1. 귀하가 취업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

- ☐1) 취업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었다
☐2) 일자리 기회는 있었으나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는 취업이 어려웠다
☐3) 교육받은 분야가 나에게 적합하지 않았다
☐4) 출산, 육아, 가사부담 등 가족을 돌보아야 해서 취업할 수 없었다
☐5) 기타 (이사, 질병 등 직접 기입 : _____)
☐6) 취업했다

문10. 귀하가 참여한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은 관련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도움이 되었다 ☐4)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문11. 귀하가 참여했던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에 얼마나 만족하였습니까?

- ☐1)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2) 별로 만족하지 않았다
☐3) 대체로 만족했다 ☐4) 매우 만족했다

문12. 귀하가 참여했던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13으로) ☐2)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13으로)
☐3) 도움이 되었다 (☞문12-1로) ☐4)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문12-1로)

문12-1. 어떤 면에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선택)

- ☐1) 취업 기회 제공
☐2)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3) 삶의 방향/ 혹은 경력개발 방향 정립
☐4) 동기 수강생들과의 교류
☐5) 자신감 향상

〈부록 1〉 프로그램별 조사대상자 수

유형	세부 프로그램	남자	여자	전체
여성비율 70% 이상인 프로그램 (14개)	Eco-beauty therapist 양성교육과정	1	15	16
	협력사례관리자	0	5	5
	지역사회조사원	0	6	6
	영아보육돌보미	0	8	8
	고학력 경력단절 방과후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0	5	5
	Eco-food coordinator 양성교육과정	0	15	15
	관광음식업 인력양성교육	2	26	28
	Green Mentor 과정	1	8	9
	경북 종가문화 컬처텔러 역량강화사업	6	10	16
	세대통합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2	10	12
	BIO-IT 트랙	4	8	12
	장류현장형 전문인력양성	9	12	21
	노인 건강 체육지도자 양성사업	8	8	16
	출판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1차)	4	7	11
	소계	37	143	180
여성비율 31~70%미만 프로그램 (10개)	삼국유사 컬처텔러 역량강화사업	5	4	9
	출판디자인프로젝트 실습(2차)	4	4	8
	물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물 해설자 양성	14	6	20
	영남 옛길 컬처텔러 역량강화사업	4	4	8
	백두대간 숲 치유사 양성사업	8	5	13
	자원봉사 기본교육 감사양성	18	24	42
	자동차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과정	3	3	6
	골프 경기진행요원 양성사업	8	5	13
	HD영상디자인(2차)	3	2	5
	식품산업 CEO아카데미	10	3	13
	소계	77	60	137
여성비율 30% 이하 프로그램 (12개)	관광인테리어(도배)	5	3	8
	승마산업 특화 인재양성사업	5	3	8
	관정관리 전문교육	14	22	36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교육 공통과정	12	9	21
	U-헬스케어기초 기술인재양성과정	5	2	7
	승용마 관리인력 양성사업	5	2	7
	식육처리 기능전문인력양성	12	1	13
	현장특화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특화 전문 교육프로그램	19	3	22
	항공전자시스템 실무기술 인력 양성사업-1	12	1	13
	신규 산업적응형 인재육성사업	27	3	30
	항공기 부품 가공기술자 인력 양성 사업	13	0	13
	로봇 시스템 설계기술 인력양성 사업	18	0	18
	소계	147	49	196

2010 연구보고서 2-9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IV)』의 단위 연구보고서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8)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2010년 12월 14일 인쇄

2010년 12월 16일 발행

발행인 : 김 태 현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978-89-8491-363-9 94330

978-89-8491-353-0 94330 (세트)

<정가 9,500원>